1959.10

중국 어린이들의 행복한 생활

배운 지식은 이런 훌륭한 열매를 맺게 한다. 미래의 무전 기사들의 솜씨!

활짝 꽃피여 나고 있는 상해 소년궁 합창단.

아동 공원의 소년 교통 정리원들은 대통로의 교통 정리원들 보다 더 엄격하다.

《누구든지 우리에게 기상 관측법을 물어 보십시오 자신 있게 대답할테니…》

다수확 실습지에서 옥수수 우량종을 가꾸고 있는 날의 농학 기사들.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소년단 1959년 10호 내용

로동당 만세!
(제 1 회)

조국 개선 환영 평양시 군중 대회에서 연설하시는 김 일성 원수

김 일성 원수의 조국 개선을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대회

박 세 영

조국에 개선하신 원수님

그 누가 어둡던 강산에
희망의 불'길 타오르게 하였나.
원수님이 높이 올리신 애국의 불'길
인민이 나아갈 길 밝히며 타올랐다.

10월의 붉은 별 우러르며
원수님 항일 빨찌산은 싸웠다.
눈보라를 뚫고 왜놈들을 부시며
《조선 인민은 죽지 않았다》고.

빨찌산은 싸웠다. 원수님이 펼치신
십대 강령 큰 뜻을 붉은 가슴에 품고,
인민들의 피눈물을 씻어 주며
열 다섯해 긴긴 나날을 싸웠다.

그처럼 그립던 인민의 수령
김 일성 원수님이 조국에 개선하시니,
만세를 부르는건 인민들 뿐 아니였다.
3천리 강산도 만세를 웨쳤다.

만경봉의 소나무들도 보았다.
정말 무지개를 펼치며 오신 원수님을,
무지개는 인민의 자유와 행복의 어머니
당을 준비하신 열'쇠 품고 오신거다.

기쁨으로 들끓는 우리 강산

수십만의 물'결은 바다에로 흐르듯
모란봉 기슭이 좁도록 모여들었다.
개선하신 전설의 영웅을 뵈오려
만고의 애국자 수령님을 뵈오려.

《그립던 그이를 한번 뵈왔으면
내 더는 소원이 없겠네》 웨치며
신들메하던 두메 산'골 할아버지도
산 넘고 물 건너 멀리 찾아 드셨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왜놈을 쳐부신
항일 빨찌산의 명장이신
원수님의 음성이라도 들으려
눈 어두신 할아버지도 찾아 오셨다.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모여온 인민들도
이 할아버지 마음으로 모두 웨쳤다.
가슴 속에 지녔던 이름 《김 일성 장군》
화산이 터지듯 만세를 웨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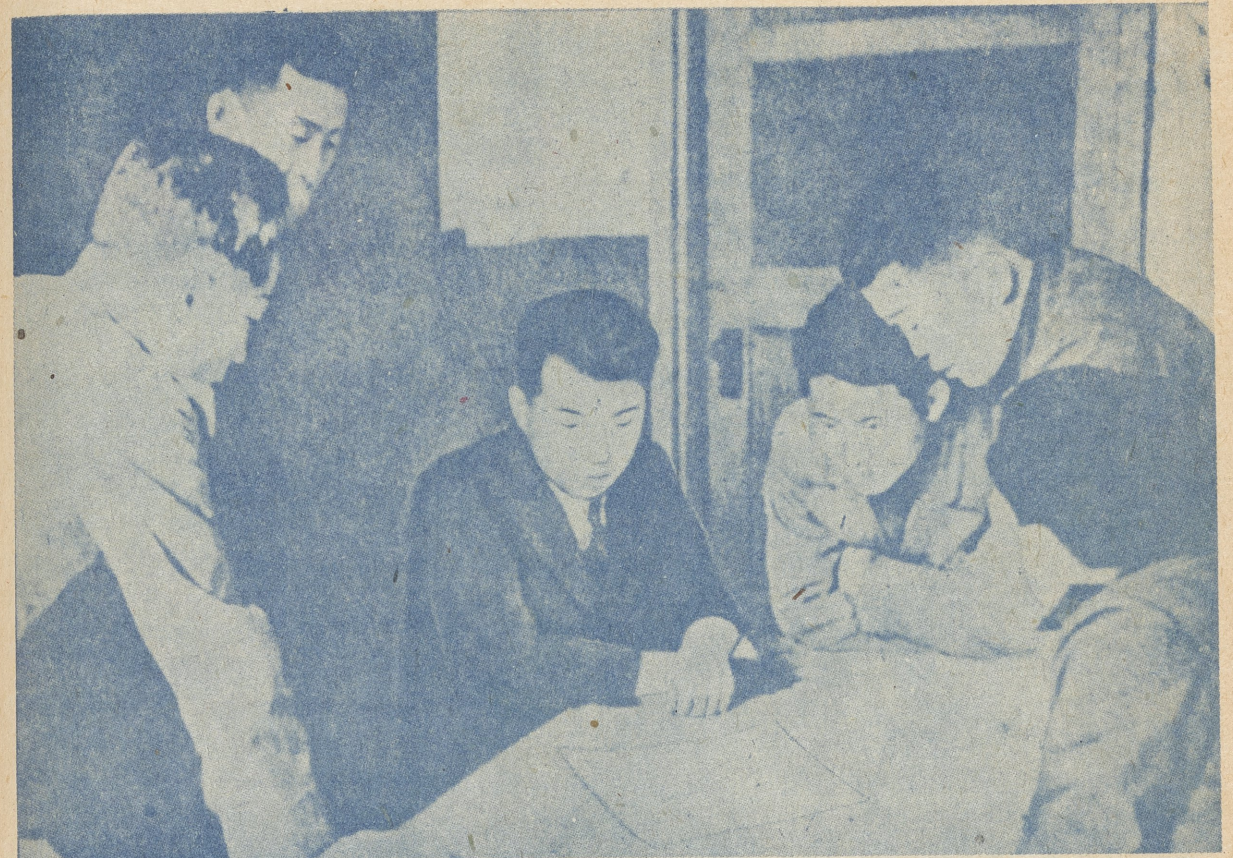
김 일성 원수와 조모의 상봉

만경대의 솔'바람도

얼마나 감회 깊으셨겠습니까.
큰 뜻 품고 떠나셨던 김 일성 원수님,
스무해 만에 찾으신 고향 만경대,
산천도 변한듯 고향 만경대.

다락 달린 대문 옆의 느티나무도
오늘은 간곳 없이 사라졌건만,
예전듯 만경대의 소나무들
만세를 부르는듯 쏴쏴 웨치는데.

방문도 미처 바르지 못한 방,
거적문을 드리운 방에서
《이게 꿈이냐, 생시냐》 눈'시울 뜨겁게
조부모님들 원수님을 맞이하셨네.

원수님은 등잔'불에서도 보셨네.
조부모님 얼굴의 주름'살들을,
거기서 쓰라린 고향의 눈물도 보셨네,
아니 간고했던 조국 강산의 모습까지도.

[illegible]당 제 3차 확대 집행 위원회 결정서 초안을 토의하시는 김 일성 원수

로동당 기'발

어둠이 물러가고 해방된 조국 강산에
휘날렸다. 로동당 기'발이
다시는 가난과 천대, 꿈에도 없도록
인민들 자유롭고 행복하라고

로동당 기'발이 휘날렸다.
애국의 피로 물든 기'발
지리한 어둠 속에서도 조국의 래일을 보시며
김 일성 원수님이 준비해 오신 당의 기'발

참된 공산주의자들로 바탕을 삼고
선진 로동자들이 앞장선 혁명의 대오

당에 드리는 충성이 불타 오르니
철벽이 막혀도 박차는 불패의 대오

로동당 기'발이 휘날렸다.
우쭐대며 당을 좀먹는 놈들
당과 인민들 사이 벌리려는 놈들
당은 서리'발처럼 모든 종파들을 내쳤다.

아 당이 없이는 우리들이 또다시
전 날의 어버이들처럼 노예로 살게다.
절세의 애국자 원수님이 앞장 서신
로동당은 해'빛처럼 행복을 뿌려준다.

조국의 등대로

우리 조국을 큰 배라 한다면
당은 높이 솟은 등대와 같다.
이처럼 원수님이 이끄시는 당은
인민이 나아갈 길 밝혀 주었다.

시내'물이 합쳐 큰 강을 이루듯,
내 몸보다도 나라를 사랑하며
착취 없는 세상 만들려는 힘 뭉쳐
당은 이끌었다. 민주의 길로 나아가도록,

허나 모든 인민이 잘 살'길 가로 막으며
민주의 나라를 불처럼 겁나하는 놈들,
지주, 자본가, 왜놈의 앞잡이 놈들,
그리고 미제와 손 잡은 놈들을 내쳤다.

인민이 주인된 새 나라로 만들려
인민 위원회 세워 새 살림 꾸리도록,
왜놈들이 허물고 간 공장들 일으키고
민주 대렬 튼튼히 당 두리에 뭉쳐 나가도록
당은 이끌었다. 조국의 등대로.

글 손명직　　　그림 유환기

나는 행복한 사회주의 꽃동산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소년단원들을 볼 때마다 항상 나의 첫 아동단원 시절을 회상하군 한다.

당시 우리 아동단원들은 김 일성 장군의 따뜻한 사랑과 가르침 속에서 온갖 곤난과 애로를 물리치면서 오직 조국 광복을 위한 믿음직한 혁명 투사로 자기를 준비하기 위해 힘썼고 또 싸웠다.

나는 이제부터 우리가 아동단에 입단한 첫 시기(11세)의 생활과 투쟁에 대하여 이야기하려 한다.

그중에서도 나의 가장 가까운 전우였던 김 봉남 동지와의 생활과 투쟁에 대하여 말하고져 한다.

우리가 아동단에 입단한 시기는 길림성 연길현 일안구 왕우거우 토성촌 사립 소학교 3학년에 다니던 때이다.

원래 이 학교는 보잘 것 없는 촌 학교였고 아이들도 150 명에 불과했다. 학생들은 대개가 가난한 농민들의 자녀들이였다. 그중에는 혁명 사업에 몸바쳐 나선 부모들을 도와 비밀 통신 련락을 하며 삐라를 몰래 날르는 일에 참가하고 있는 아이들도 몇몇 있었다.

나와 봉남이는 이미 열살 때부터 아버지의 혁명 사업을 도와 여러 가지 일들에 참가하고 있었다.

참으로 이때만 해도 우리 아동단원들은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들의 일을 돕기 위해 늘 바삐 돌아 다녀야 했다. 우리들에게는 같은 나이인 아이들처럼 장난치며 다닐 그런 여유라군 없었다.

우리들은 비밀 편지를 수수'강 속에 넣고 말타기 놀음을 하는 것처럼 하고 련락을 다녔고 때로는 편지를 엿가락 속에 넣고 다니기도 했다. (만일 왜놈들에게 들키우면 홀딱 먹어치울 생각으로…)

김 일성 장군께서 령도 하시는 항일 유격대의 활동이 온 만주를 휩쓸기 시작하자 왜놈들은 대대적인 병력을 가지고 미쳐 날뛰였다.

혁명 앞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애로와 난관들이 생겨났다. 그러나 지하 공작

원들인 우리의 부모들은 조금도 굴함 없이 더 대담히 더 교묘한 방법으로 왜놈들과 싸웠다.

왕우구 공청 지부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고 있던 우리 토성촌 아동단원들은 (당시 7명이였다) 더욱 조직을 튼튼히 꾸리고 어른들을 도와 어려운 혁명 과업들을 수행해 나갔다.

우리들은 투쟁만 잘 한 것이 아니라 항상 김 일성 장군의 어린 전사답게 자신을 튼튼한 혁명 사상으로 무장하는 데 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들은 항상 공청 형님들의 지도 밑에 비밀리에 모여서는 국제 정세와 조국의 형편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사회주의—공산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제목으로 토론회도 가졌다. 한편 매일같이 아동단원으로서 지켜야 할 규률 문제와 임무 수행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놓고 비판회도 가지군 하였다.

우리 아동단원들은 학교에서나 부락에서도 언제나 모범적으로 활동하였다. 아동단원들은 항상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서 나아 갔고 아이들과 부락 인민들에게 혁명 승리에 대한 사상을 선전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은밀히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때문에 학교에서는 물론 일반 부락 인민들은 아동단이 조직된 것은 꿈에도 몰랐다. 다만 학교에서는 혁명 임무를 맡고 공작하던 최 선생 한 분 밖에는 우리의 조직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처음 우리들은 비밀 통신 련락과 삐라 살포 공작을 맡아 진행하였다. 우리들은 묘한 방법을 생각해 내서는 깜쪽 같이 삐라를 살포하군 하였다.

특히 봉남이는 늘 남들이 미처 생각해 내지 못하는 묘한 방법으로 삐라를 살포하였다.

그는 부락의 악질 지주네 집 기둥마다에 삐라를 붙이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밤에 담을 타고 넘어 가서는 지주네 집 창문을 뚫고 삐라를 넣기도 하였다.

한 번은 영리한 봉남이 지주네 아이와 친하게 노는 척하고 그 집에 들어 가서 바느질 광주리 속에 한 뭉테기의 삐라를 넣고 나온 일도 있었다. 이것이 그날 소금표 조사를 나왔던 《만주 공안국》 놈들에게 발각이 되여 지주와 그의 아들놈이 실컷 매를 맞았다.

이처럼 아동단원들의 교묘한 방법에 의한 삐라 살포는 인민들을 혁명 승리에로 불러 일으켰고 악질 지주놈들과 친일파놈들에게는 공포와 불안을 안겨 주었다.

우리들의 삐라 살포 공작은 지혜 하나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 일이다. 이는 오직 혁명 승리를 굳게 믿고 원쑤를 철저히 미워하는 불타는 적개심이 없어 가지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김 일성 장군의 직접적인 교양과 가르침을 받은 우리 아동단원들은 이처럼 원쑤를 미워하였고 그런 데서 남들이 생각해 내지 못하는 묘한 방법을 알아내여 투쟁하였던 것이다.

김 일성 장군의 유격 부대들의 투쟁이 날을 거듭할 수록 더욱 치렬해 지자 왜놈들은 닥치는 대로 부락을 불 태우며 인민들을 학살하기 시작하였다.

놈들이 악착스레 달려들면 들 수록 인민들은 더욱 튼튼히 김 일성 장군 유격대 주위에 굳게 뭉쳐 갔다.

우리 부락의 지하 공작원들의 활동도 더욱 활발해 갔다. 우리 부락에는 유격 부대에서 파견된 많은 정치 공작원들이 드나들었다. 그들은 주로 창락동에 있는 봉남이네 집을 근거로 삼고 공작을 수행하고 있었다.

우리 아동단원들은 공작원들의 신변을 지키기 위해 보초도 섰고 정보도 수집하여 알려 드리군 하였다. 우리들은 경각성을 높여 맡은 임무들을 수행하였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아동단원 한 동무가 지금 왜놈들이 부락을 수색하러 들어 온다는 급한 소식을 알렸다.

많은 왜놈들이 혁명가들의 집들을 수색하면서 벌써 몇 사람을 검거해 가지고 아래'동리로부터 올라 온다는 것이였다.

이 소식을 들은 우리들은 가슴이 철렁하였다. 만일 빨리 손을 쓰지 않는다면 봉남이네 집에서 비밀 공작을 하고 있는 동지들의 신변이 위험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련락하는 문제가 우선 급했다. 그러나 딱한 사정은 그때는 아직 공부가 끝나지 않은 때이므로 함부로 빠졌다가는 곧 눈치채일 수 있었던 것이다.

누구보다도 급해난 것은 나와 봉남이였다.

마침 그때는 휴식 시간이여서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이 왁자지껄 떠들면서 놀고 있었다.

봉남이가 무슨 좋은 생각을 알아 내였던지 눈을 반짝이며 나에게 속삭였다. 나는 그만 감탄한 나머지 소리를 지를 번 하였다. 이윽고 봉남이가 말을 걸었다.

《명직아! 씨름 한 번 하자! 어제까진 너한테 졌지만 오늘은 자신 있다.》

봉남이는 제법 자신 만만한 얼굴로 벌써 나의 허리를 붙잡는 것이였다.

《밤낮 지기만 하는 놈이 오늘이라구 이길 것 같으냐?》

하고 나는 코 웃음을 치며 빈정댔다.

사실 봉남이는 씨름에서는 늘 나에게 지군 하였다.

《야 작작 뽐내라! 오늘은 글쎄 어림없어!》

봉남이는 큰 소리를 치며 덥석 내 허리를 두 손에 감아 쥐였다.

운동장에서 놀던 아이들은 재미 있는 구경'거리가 생겼다고 우리에게로 오그라들었다.

봉남이는 뭉턱 내 허리를 끌어 안으며 아낚시를 걸었다. 나는 지면 망신이다고 생각하고 《이놈 한 번 혼나 봐라》 하고 닁큼 들어 올렸다. 그러자 둘러선 아이들이 와—와 떠들며 좋아라 야단쳤다. 봉남이는 결사적으로 달려 들었다. 원래 씨름에는 자신이 있던 터이므로 나는 들어 올린 봉남이를 휙 휘둘러 놓고 날새게 배지개로 꽝하니 그를 땅'바닥에 멧다 꽂았다. 그러자 일시에 와야 하는 환성이 터졌다.

단단히 혼'살을 먹은 봉남이는 분한 나머지 한동안은 일어서지도 못했다.

《야 이놈아! 아직도 덤빌테냐?》

나는 싱글싱글 웃으며 비수를 먹였다.

그러나 아이들은 봉남이를 부추겨 대며 한 번 더 붙으라고 응원을 했다.

나는 태연히 아이들을 돌아 보며 말했다.

《어림없다. 이 봉남일 봐라! 얼마나 혼이 났는지 일어 서지도 못하지 않니?》

《이 자식이?》하며 봉남이는 후닥닥 일어서며 성이 나서 나에게 달려 들었다.

봉남이는 나에게 달려 들기가 바쁘게 주먹으로 나의 량미간을 때렸다. 눈에서는 번쩍 불이 일었다. 코피가 조금 흘러 내렸다.

나는 더는 참을 수가 없는 듯 《이놈 새끼 죽어 봐라!》하고 도망치려는 봉남이를 붙잡고 늘어졌다.

우리들은 서로 욕지거리를 하며 부둥켜 안고 뒹굴었다.

큰 싸움이 벌러지자 몇몇 아이들이 우리를 말리려 하였다.

사실 아이들은 우리가 이렇게 까지 죽을둥 살둥 싸우는 것을 여태 보지 못했다.

봉남이와 나 사이는 정말 친 형제 처럼 다정한 사이였으므로 이처럼 세차게 싸우는 우리들을 보는 아이들은 그만 눈이 휘둥그래졌던 것만은 사실이다.

힘으로는 당해 내지 못하겠다는 듯 봉남이는 내 손에서 빠져 뒤'산으로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나는 된 욕을 퍼부으며 운동장에 있던 돌맹이를 움켜 쥐고 봉남이를 따라 갔다.

나는 코피를 흘리며 봉남이를 따라 가면서도 그의 묘한 꾀에 감탄하였다. 사실 이것은 혁명을 위해 하는 일이였고 결코 싸움은 아니였던 것이다.

이것은 봉남이를 학교에서 빠져 나가게 할 우리들의 계획이였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런 것을 내색도 내지 않고 더욱 악을 쓰며 그의 뒤를 따라 갔다.

이것은 다른 아이들의 눈에는 참으로 세찬 싸움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래 아이들은 우리를 그냥 놔두면 무슨 큰 일이 날가 봐 뒤를 따르려 했다. 마침 이때에 상학종이 울렸다. 그래 아이들은 우리 뒤를 따를 것을 단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봉남이가 뒤'산으로 뛰여 오른 것도 여기에는 리유가 있었다. 큰 길로 가자면 상당히 돌아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뒤'산을 넘어 가면 그 절반은 지름해 갈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만일 이런 꾀를 쓰지 않고 공부하다 말고 집으로 간다거나, 또는 뒤'산으로 넘어 간다면 누가 보아도 이상하게 생각할 것만은 뻔한 일이였다.

봉남이는 달려 오는 나를 붙잡기가 바쁘게 《명직아, 용서해!》하며 얼른 종이를 꺼내 코 피를 훔쳐 주었다. 그리고는 손'수건을 찢어서 아직 흘러내리는 피를 막아 주었다. 그러면서 그는 성내지 말아 달라고 애원을 하듯 말했다.

나는 성가시다는 듯 《내 걱정은 말고 빨리 갔다 오너라!》라고 독촉했다.

《명직아! 그럼 내 얼른 집에 갔다 올게! 다음 작문 시간까지는 돌아 갈테니 너는 내려 가서 공부를 해라!》

봉남이는 급히 이렇게 말하고는 산을 넘어 갔다.

나는 코피를 멈춘 후 학교로 내려 왔다. 나의 코'등은 퍼렇게 멍이 들고 퉁퉁 부어 오르기까지 했다. 물론 아프고 저렸던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아픔 보다는 봉남이가 무사히 집에까지 가기만을 바래는 마음이 더 간절하였다.

학교로 내려온 나는 몹시 분한 것처럼 《개 같은 놈이 내려 오기만 하면 그저 없다!》하고 고아댔다.

이럭저럭 한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 작문 시간이였다.

최 선생이 들어 올 시간이 되였는데도 봉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나의 머리 속에는 여러 가지 불길한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맴돌이쳤다.

혹시 산을 내려 가다 다리를 시그뜨리지나 않았을가?

혹시 놈들에게 붙잡히지나 않았는지?

생각을 거듭할 수록 더욱 안타깝기만 했다. 나는 더욱 걱정이 되여 줄곧 밖을 내다 보고 있었다.

이런 때 바시시 문이 열리였다. 봉남이가 들어 왔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내 곁에 와 앉으려고 하였다.

나는 그제야 긴 숨을 내쉬였다. 그러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나는 대뜸 주먹을 부르쥐며 《이 자식!》하고 소리치며 봉남에게 덤벼 들었다.

아이들은 또 싸움판이 벌러지는가부다 하고 와그르르 떠들며 일어 섰다.

이때에 최 선생이 들어 왔다. 그바람에 아이들은 제마끔 제자리로 뛰여 갔다.

교단에 선 최 선생이 흘끔 퍼렇게 멍이 든 나의 량미간을 눈주어 보는 것 같았다. 이때의 최 선생의 눈에는 어딘가 모르게 따뜻한 사랑의 기색이 스쳐 지나는 것을 나는 보았다. 물론 이것은 나와 봉남이 밖에는 보지 못했을 것이다.

최 선생은 나와 봉남 사이에 벌러졌던 《큰 싸움》을 물론 알고 계셨다.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들이 무엇 때문에 《싸움》을 했는가 하는 것까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다. 그러나 최 선생은 모르는 체 하였다.

인사를 마치고 모두 자리에 앉았을 때 최 선생은 엄격한 음성으로

《명직이! 봉남이 일어 섯!》

하고 소리쳤다.

우리들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 섰다.

《명직아! 너는 반장으로서 다른 학생들의 모범이 되여야 할텐데 싸움을 해? 더욱 친한 동무인 봉남이하고 말이다. 둘이 복도에 나가 손을 들고 서 있거라!》

할 수 없이 봉남이와 나는 복도로 나와 두 손을 들고 벌을 섰다. 그러나 최 선생의 마음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불평을 한다거나 언짢아 하지도 않았다.

우리들은 생각하였다. 비밀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통신 련락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 보다 더 큰, 더 무서운 벌이라도 접수할 수 있다는 것을…

한참 손을 들고 벌을 서고 있는데 봉남이가 나직한 소리로 《다 잘 됐어…》하고 기쁜 듯이 말했다.

나는 그저 안도의 빛을 얼굴에 띄우며 고개만 한 번 끄덕였다.

역빠른 봉남이는 한 십분 벌을 서다가 최 선생에게 말했다.

《선생님! 제가 잘 못했습니다. 제가 먼저 명직이를 때렸기 때문에 이애가 성을 낸 것입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리구 명직이에게도 용서를 받겠습니다.》

봉남이의 애원하듯 말하는 것을 조용히 듣고 있던 최 선생은

《알았으면 됐다. 앞으로는 동무지간에 싸워서는 안 된다. 알겠니?》

하고 뜻 있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 보며 말했다.

《네!》하고 우리들은 일제히 대답했다.

우리들은 최 선생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다. 이는 최 선생이 다른 아이들이 의심을 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이다.

우리들은 서로 히죽이 웃으며 자리에 돌아 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란이 앉아 서로 속삭이며 작문을 지였다.

이날 봉남이가 제때에 련락을 하지 않았더라면 마침 회의를 하고 있던 혁명 동지들의 신변은 대단히 위험했을 번 했다.

봉남이의 련락으로 혁명 동지들이 재빨리 흩어진 직후에 벌써 두 놈의 선발대 놈들이 달려 들었다는 것이다. 그후에 다시 십여명의 왜놈들이 들어 닥쳤는데 놈들은 결국 헛물을 켜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들은 맡은 임무라면 어떠한 일이 있드래도 정확히 실천하군 하였다.

이것이 11세 나는 때의 우리들의 첫 혁명 활동들이였다.

그후 일제 놈들은 대대적인 병력으로 우리 부락에 대한 《토벌》을 감행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집과 학교를 잃었고 산으로 피신하여 다니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김 일성 장군의 항일 유격 부대들은 이르는 곳마다에서 왜놈들을 쳐부셨고 조국 광복의 날을 앞당겨 싸웠다.

그러면서 동만 일대에 걸쳐 유격 근거지를 창설하였으며 인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였다.

우리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직 김 일성 장군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집을 짓고 살았고 학교에도 다녔다.

이때로부터 유격 구역 내에서는 공개적으로 공산당, 공청, 아동단들이 활동하게 되였다.

우리 아동단 조직도 날이 갈 수록 확장되고 강화되였으며 아동단원들은 붉은 넥타이도 매고 곤봉도 차고 다니며 김 일성 장군의 어린 혁명 전사로 씩씩하게 자라났다.

이리하여 수많은 혁명의 붉은 싹들은 슬기로운 김 일성 장군의 전사로, 혁명 투사로 자라 났고 조국 광복을 위한 싸움마다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웠다.

참된 학습

—황북 사리원 북리 중학교 3분단에서—

3분단 분단 위원장인 한 의식 동무가 금년 새 학년 첫날을 맞으며 쓴 일기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씌여 있다.

《…나는 오늘부터 초급반 3학년이 되였다. 앞으로 1년 후이면 졸업하게 된다. 앞날을 생각하면 기쁨과 희망이 솟는다. 나의 이 기쁨은 중학교를 졸업하게 될 앞날을 생각한 데도 있지만 그것만은 아니다. 공학 기사가 되려는 나의 결심이 가슴을 뜨겁게 하기 때문이다.》

의식이는 배운 지식을 실지 생산 실습을 통해 쓸모 있게 익힐 때야만이 자기의 훌륭한 희망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다.

그럼 의식이가 어떻게 참된 학습 방법을 찾게 되였으며 지금은 자기의 희망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을가?

× ×

의식이는 원래 무엇을 만들기 좋아 하는 성미이다. 그래 공작 크루쇼크가 조직되는 첫날부터 그는 공작 크루쇼크원이 되였다.

공작 크루쇼크원이 된 이후부터 의식이는 손'재주가 많이 늘었다. 그는 공작 크루쇼크 활동을 통해 접칠, 계수기, 문'고리, 쇠스랑 나무그릇 등 못 만드는거라군 없었다.

분단에서는 물론 학교에서도 의식이에 대한 칭찬은 자자하였다.

《의식이는 인민반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최우등을 해 왔는데 게다가 또 손'재주까지 있으니까 문제 없이 자기 희망 대로 기사가 될 거야.》 동무들은 모두 이렇게 칭찬하면서 의식이를 부러워하기까지 하였다.

이런 환경에서 의식이는 3학년에 진급하였다.

3학년이 되자 과목은 더욱 어렵고 복잡해 졌다.

물리학을 비롯해서 화학 기하 등 많은 복잡한 리론들을 배우게 되였다. 때문에 크루쇼크에서도 지난 날처럼 손'재주를 보여주는 소소한 물품들 뿐만 아니라 배운 지식을 다져가며 복잡한 기계들도 만들기 시작하였다.

3학년에 올라 오자 의식이는 크루쇼크에서 물리에서 배운 전기 지식에 기초하여 스피카를 만들 과제를 받게 되였다.

의식이는 복잡한 기계를 자기의 손으로 직접 만들게 된 것을 만족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기사가 되면 이 보다 더 훌륭하고 복잡한 기계를 만들테다…》하고 앞날의 자기 모습을 머리에 그려 보기도 하였다.

의식이는 이런 환상과 기쁨을 가지고 스피카를 만드는데 자기의 지식과 재능을 다하였다. 그래 그 누구 보다 먼저 스피카를 만들었다.

이때 동무들은 의식이의 재능에 대하여 감탄하였다.

의식이는 동무들의 칭찬과 감탄에 둘러 싸여 자기가 만든 스피카에 전기를 련결 시키고 스위치를 넣었다.

그런데 웬 일일가? 스피카에서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의식이는 원인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원인을 빨리 찾을 수 없었다.

그렇게 애를 쓰면서 만든 스피카에서 소리가 나지 않으니 동무들 보기도 쑥스러웠다. 그래 의식이는 어떻거든 자기의 힘으로 꼭 원인을 알아 내리라 단단히 마음 먹었다. 의식이는 이모 저모를 살피며 원인을 알아 내려고 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의식이는 이때처럼 실망해 본 적이 없었다. (다른 학교 소년단원들은 스피카쯤은 제깍제깍 제작해 낸다는데 기사가 되겠다는 내가 스피카 하나 자기의 힘으로 완성하지 못한단 말인가, 이러구서야 어떻게 기사가 되겠다는 희망을 이룰 수 있단 말인가) 의식이는 이렇게 자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런 때 마침 크루쇼크 지도원 선생님이 들어 오셨다.

선생님은 철공 크루쇼크원들이 목선반을 완성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의식이가 만들던 스피카는 어떻게 되였느냐고 물으시였다.

의식이는 한참 동안은 대답하지 못하고

머리만 긁적거리고 있다가 《선생님! 저 다 만들긴 만들었는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다 만든게 아니지 어디 선생님이 한 번 봅시다.》 선생님은 의식이의 스피카를 두루 살피시더니 《장차 기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스피카를 손'짐작으로 만들어서야 되나, 우리가 하는 공부는 무엇 때문에 하나, 학과 시간에 배운 기하학을 잘 적용시켜 생각해 보시요 원인은 배운 지식과 련결시켜 생각해 보지 않은데 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은 의식이는 집에 돌아 와서도 스피카만 생각하였다. 그는 기하책과 물리책을 펼쳐 놓고 배운 것을 찬찬히 돌이켜 보면서 스피카를 뜯어 보았다. 그러나 원인은 찾을 수 없었다. 며칠 동안은 틈만 있으면 원인을 찾는데 시간을 바쳤다.

어느날 집에 돌아 온 그는 선생님이 무엇 때문에 기하학을 적용해 보라고 하셨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다. 그래 스피카를 뜯어 놓고 기하학을 적용할만한 대목들을 살펴 보았다. 여기까지 다달은 의식이는 드디여 원인을 알아 내였다.

기하학에서 배운 평행과 직선을 엄격히 적용해야 할 보조 자선과 바늘을 손'짐작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의식이는 이 순간처럼 기뻐 본 적이 없었다.

스피카를 다시 수선하는 의식이는 지난날 학과 학습과 생산 실습을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해 온 학습 생활을 돌이켜 보았다. 그러면서 배운 지식과 실습이 밀접히 련결되는 때 만이 기사가 되려는 자기 희망을 이룰 수 있으며 배운 지식이 완전히 자기의 지식으로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의식이는 스피카를 완성해 가지고 크루쇼크원들이 있는 공작실로 달려 갔다.

의식이는 크루쇼크 지도원 선생님과 동무들의 커다란 기대 속에서 스피카에 전선을 련결시키고 스위치를 눌렀다. 스피카에서는 노래 소리가 울려 나왔다.

의식이는 자기가 만든 스피카의 노래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터질 듯한 기쁨을 느꼈다.

이 후부터 의식이는 자기 학과 학습을 열성적으로 하는 한편 그 지식에 근거하여 변압기를 해부해 보았고 용접기, 선반기 사용법도 배웠다.

그리고 협동 조합 일을 협조하러 나가서도 물리에서 배운 지레의 법칙을 리용하여 작업하였고 집에서 물을 기를 때도 도루레의 법칙을 리용하였다.

의식이는 실습에서나 로동에서나 항상 배운 지식을 적용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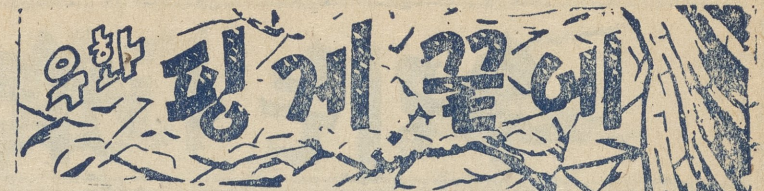
얼마 후 크루쇼크에서는 진실한 학습 방법을 깨닫고 모범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의식이를 크루쇼크 책임자로 선거하였다.

의식이는 크루쇼크 책임자로 활동하면서 학습과 실습을 결합시켜 익혀진 지식은 영원히 자기의 것으로 된다는 자기 체험을 동무들에게 이야기하여 준다.

의식이는 지난날의 자기와 비슷한 결함을 가지고 있는 연 석중 동무를 잘 지도해 주었다. 석중 동무는 목수 일도, 용접도 잘하며 어떤 물건이나 잘 만들지만 학과를 게을리하여 학과 성적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의식이의 방조에 의하여 지금은 학과 학습도 실습도 다 훌륭히 할 수 있게 되였다.

의식이는 오늘도 사회주의 조국을 건설하는 훌륭한 공장 기사로 복무할 자기의 희망을 향해 계속 진실하고 보람 있는 학습과 생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

우 봉준

김 서방이 이웃집 찾아 가서
《여보게 뒤'산으로 나무 하러 가세나》
박 서방은 방안에서 대답하기를
《우리 집엔 땔 나무 아직 있는 걸》

김 서방이 이웃집 찾아 가서
《여보게 나무 하러 가지 않겠나》
박 서방은 문틈으로 대답하는 말
《춥지도 않은데 무얼 서둘러》

김 서방이 이웃집 찾아 가서
《눈 오기 전 나무하러 어서 가세나》
박 서방은 팔짱 끼고 하는 소리
《뒤'산엔 맨 나문걸 천천히 하지》

남 다 자는 어느 밤에 눈이 내렸네
김 서방네 높다란 나무'가리에
박 서방네 텅 빈 앞 뒤 마당에
소복소복 함박눈이 내려 쌓였네

박 서방은 야단 났네 땔 나무 없어
궁리 끝에 울안에 선 나무를 찍네
해마다 가을이면 소출도 많은
아름드리 밤나무를 도끼로 찍네

앞엣 일 미리 미리
차비하지 않는 이들
나무라지 못하리
박서방의 게으름을
이 핑게 저 핑게
핑게로만 사는
이들은.

우리는 이렇게 학습한다

생활을 규칙적이며 계획적으로 조직

나는 대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일이지만 지난해 1학기에는 산수에 4점을 맞았습니다. 학급부에는 가끔 3점까지도 기입되군 했습니다.

대 위원장으로 선거된 나는 대 위원회 사업을 구실로 공부는 잘 하지 않고 제멋대로 생활하였습니다. 그리면서 마음 속으로는 은근히 선생님이 생각해 주리라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학기말 나의 성적표에는 3점짜리까지 나타났습니다.

이 때에야 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나는 왜 나의 성적이 또 떨어 졌는가를 돌이켜 보았습니다. 나는 지난날 나의 잘못된 생각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뒤떨어진 과목을 추세우며 모든 학과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꾸준하게 배우며 집에 가서도 규칙적이며 계획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나의 생활을 규칙적이며 계획적으로 조직하기 위하여 일과표를 만들었습니다. 일과표는 담임 선생님과 어머니와 의논해서 가정 조건, 학습에서 뒤떨어진 과목과 앞선 과목, 어려운 과목과 쉬운 과목, 그리고 나의 건강, 취미 등을 고려해서 시간을 짰습니다.

나는 학교에서 돌아온 후 1시간을 복습 시간으로 정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시간을 꼭 지켜 그 날 배운 과목들에 대한 복습을 진행하군 했습니다. 그 다음은 어머니의 시중도 들고, 내가 취미 있어 하는 수예도 하며, 저녁 산보도 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1시간 30분 동안 숙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문학 작품을 읽군 했습니다. 아침에는 주로 로어 단어와 시 암송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규칙적인 생활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내가 꼭 지켜야 할 의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아 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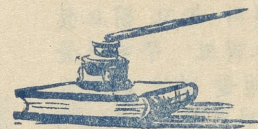
그리하여 나는 학년말에 가서 다시금 최우등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함남도 대흥군 대흥
고급중 학교(초급반)
리 금자

예능과 학습과 나

나는 오래동안 절름발이 공부를 했습니다. 수학이나 물리 과목을 비롯한 학과목은 모두 최우등이였는데 음악, 체육 등 예능 과목은 늘 보통이 였으니까요, 그래도 나는 이것을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자가 되려는데 그까짓 음악이나 체육이 무슨 소용이람—

이렇게 혼자 속으로 생각한 나는 예능과에 관심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음악이나 체육 등 예능과 시간이면 뺑소니를 쳐서 외딴 곳에서 학과목 학습을 하였고 그렇게 되지 못하면 시간중 장난에만 정신을 팔군 했습니다.

어느날 분단에서는 《공산주의 사회와 우리의 생활》이라는 이야기 모임을 가지였습니다. 이 모임에서 나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기술, 문화, 예술 등 다방면적으로 발전되여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였습니다.

생활이 보다 더 문화적이고 즐거워 질 앞날을 생각해 보면 예능과 학습을 이상 더 홀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예능 과목 학습도 다른 과목에 못지 않게 잘 하여 나의 문화적 소양을 높여야 겠다는 결심을 가지였습니다.

나는 그후 음악, 체육 학습에 열성적으로 참가했습니다. 분단에서 영화 감상을 조직하거나 씨클 경연 대회 때면 참가하지 않던 버릇도 시정하고 이제는 감상 모임에도 잘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지오 앞에서 음악 감상도 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배워주는 음악에 대한 지식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춤도 꾸준히 배웁니다.

나는 모든 예능 과목에 우등으로 되였습니다. 앞으로 나는 다방면으로 발전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더 훌륭히 공부하며 최우등으로 되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황북 사리원시 북리 중학교
제 11분단 리 정자

다시 최우등생으로

나는 인민반 1학년부터 졸업할 때까지 계속 최우등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공부를 잘하여 조국을 위해 훌륭하게 일할 수 있는 일'군으로 되겠다는 마음보다는 어떻게 하면 시험 때 5점을 얻어 선생님과 부모님들에게 칭찬을 받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늘 앞서군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꾸준하고 인내성 있게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느때는 선생님의 물음에 막히지 않을 정도로 공부하다가 학기말이나 학년말에 가서야 불이나게 학습을 하군 했습니다.

초급반에 진급해서도 나는 이런 학습 방법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1학기에는 보통으로 2학기에는 겨우 우등, 학년말 시험에서는 또 보통으로 내려갔습다. 초급반이 되여 새로 배우는 과목도 많이 불은데다 인민반에서 처럼 헐하게만 생각하고 꾸준히 공부하지 않은 탓으로 나의 학업 성적은 이렇게 자꾸 내려만 갔습니다. 나는 실망까지 하게 되였습니다.

바로 이때 선생님께서 들려 주신 혁명 투사들은 어떻게 학습 하였는가?하는 이야기는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습니다.

그분들은 일제의 강점으로부터 조국을 해방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 수 있는 훌륭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항상 인내성 있게 학습하시였습니다.

종이가 없어 나무 껍질을 벗겨다 학습장을 만들어 쓰시였고 행군를 하시

면서도 앞 사람의 배낭 우에 책을 펼쳐 놓고 읽으셨답니다. 그리고 주머니를 만들어 모래를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전투가 끝난 후라든지 행군하다 쉬는 시간이면 모래 주머니를 펼쳐 놓고 글 쓰기를 배웠답니다. 밤이면 우둥'불 곁에서 밤을 새워가며 공부하였답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 같은 좋은 환경 속에서도 학습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조국의 앞날의 훌륭한 일'군으로 되기 위해서는 혁명 투사들 처럼 인내성 있게 배워야겠다는 결심을 가졌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2학년에 진급하여 새 학년을 맞으면서부터 혁명 투사들의 모범을 본받아 꾸준하게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오면 실험실, 공작실, 실습지 작업에 열성스럽게 참가하여 꾸준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학습 시간과 휴식 시간을 잘 조직하고 열심히 복습했습니다. 나의 이와 같은 노력은 2학년 학년말 시험에서 다시 최우등의 영예를 쟁취하게 되였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인내성 있게 공부하여 최우등의 영예를 빛내이겠습니다.

량강도 보천군 청림
중학교 제 2 분단
김 금자

나의 실습 포전

우리 집 채마밭에는 각종 재배 식물을 심은 5평의 포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학교에서 배우는 식물학을 더 잘 학습하기 위해서 어머니께서 타낸 나의 식물 실습 포전입니다.

나는 여기에 학교의 식물학에서 배우는 옥수수, 밀, 콩, 감자, 배추, 도마도, 목화 등 각종 재배 식물들을 선진 영농법에 의하여 심고 가꾸었습니다. 밭을 50cm 이상 깊이 갈았고 비료도 많이 주고 물도 길어다 주군 했습니다. 그랬더니 같은 땅이면서도 내가 심고 가꾼 것은 어머니가 가꾸는 것보다도 몇곱절이나 더 잘 되였습니다. 나는 깊이 갈고 비료도 많이 주고 물을 주는 것이 작물의 수확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또한 재배 식물을 심고 가꾸면서 작물의 구조와 생활, 작물의 특징들을 관찰하여 식물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많이 얻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여 얻은 지식을 《관찰과 실습》이라는 노트에 적군 했습니다.

특히 나는 비료의 성분에 대한 지식을 더욱 넓혔습니다. 나는 도마도의 다수확을 내볼 작정으로 내가 심은 여러가지 재배 식물 가운데서도 도마도를 가꾸는데 많은 노력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비료의 성분은 생각 지도 않고 아무런 비료이건 덮어놓고 많이 주면 잘 될줄만 알고 심심하면 도마도 포기들에 화학 비료나 인분 말리운것을 가져다 주군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키를 넘게 쑥쑥 자라 올랐습니다. 그런데 키만 계속 자랄 뿐이고 열매가 잘맺히지 않았습니다. 그후 선생님을 통하여 안 일이지만 도마도와같은 열매를 맺는 식물들에는 닭똥같은 린 성분이 많은 비료를 주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는 이 실습 포전을 통하여 식물 과목에 대한 지식을 더욱 넓고 깊게 다지며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황남도 신천군 신천
고급 중학교 (초급반)
제 4분단 오 옥자

왕평 아저씨

글 최 옥선　　그림 오 영복

우리 인민 군대의 일시적 후퇴시기였다.

덕천 지방에 기여 들었던 미국놈들은 수많은 애국자들을 학살하면서 정숙이의 아버지도 무참히 학살하였다.

아버지를 잃은 정숙이는 놈들이 멸망할 날을 기다리면서 어머니와 어린 동생과 같이 나날을 지내였다.

정숙이의 뜻 대로 놈들은 우리 공화국 땅에서 오래 발 붙이고 있을 수 없었다.

중국 인민 지원군과 우리 인민 군대의 협동 작전에 의해서 놈들은 무리 죽음을 당하며 쫓겨 가기 시작하였다. 쫓겨 가는 놈들은 최후 발악으로 갖은 악랄한 짓을 다 하였다.

산'기슭에 자리 잡고 있던 정숙이네 집 상공에도 밤낮없이 미국놈 쌕새기들이 하늘을 쏄며 날아 다니였다.

정숙이와 그의 어린 동생들은 비행기 소리가 날 때마다 가슴을 조이며 어머니 품에 기여 들군 하였다.

《조금만 참아라, 이제 우리 인민 군대와 지원군 아저씨들이 저놈들을 모조리 쳐 없앨게다. 그땐 놈들에게 학살된 아버지의 원수도 갚게 된다.》 어머니는 일곱살인 어린 정숙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군 하였다.

어느날 저녁이였다. 갑자기 미국놈들의 비행기 수십 대가 벌떼처럼 날아와 덤벼들기 시작하였다.

심상치 않은 비행기 소리에 수심을 띠고 계시던 어머니는 정숙이더러 먼저 방공호로 나가라고 하시면서 급히 어린 동생을 업기 시작하였다.

정숙이가 막 방공호에 뛰여 들었을 때였다. 방금 뒤에서 귀청을 찌르는 요란한 폭음 소리가 들려 왔다. 순간 정숙이는 비명을 지르며 폭풍에 떠밀려 방공호 바닥에 쓰러졌다. 정신이 아찔해져 한동안 바닥에 쓰러 졌다.

정숙이는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다.

그는 번쩍 고개를 들었다. 아픔도 무서움도 잊어 버리고 방공호 안을 휘둘러 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순간 정숙이는 가슴이 철렁하였다. 그는 몸을 떨며 일어나 밖으로 뛰여 나왔다. 매캐한 연기가 그를 휩쌌다. 직탄을 맞아 내려 앉은 집에는 삼'단 같은 불'길이 치솟아 오르고 있었다.

(어머니와 동생이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자 정숙이는 《엄마!》하고 목이 찢어지도록 소리를 지르며 땅'바닥에 쓰러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정숙이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집은 몽땅 타버리고 타다 남은 기둥들에서 몇 줄기 연기가 몰몰 피여 오르고 있었다.

정숙이는 울 기운 조차도 없었다.

사랑하는 어머니와 동생마저 잃어 버린 정숙이의 눈 앞은 캄캄하였다. 그는 한동안 애타게 울며 재'더미가 된 집터를 예돌았다.

어디로 갈 것인가? 정숙이는 갈 곳도 없었다.

문득 십리 남짓하게 상거해 있는 작은 아버지 생각이 났다.

고아가 된 정숙이가 정신 없이 산'골'길을 달리기 시작하였을 때는 늦은 저녁이였다.

찬바람에 몸은 떨리고 어두 컴컴한 산'골'길은 무시무시하였다.

그러나 어머니를 생각할 수록 가슴은 미여 지는듯 아파났고 눈물은 그칠 사이 없이 두 뺨을 적시였다.

작은 아버지네 집이 가까이 보이자 정숙이는 더욱 설음이 북받쳐 큰 소리를 내여 울었다. 다음 순간 정숙이는 실망한 나머지 풀석 땅'바닥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다. 행여나 하고 찾아온 작은 아버지네 집은 텅텅 비여 있었던 것이다. 찢어진 문풍지만이 칼바람에 잉잉 울고 있었다.

이사 간지도 오랜듯 방'바닥에는 먼지가 가득 쌓여 있었다. 작은 아버지네 식구는 전투가 시작되자 이웃집 사람들과 같이 모두 피난을 떠나간 것이였다.

실망한 정숙이는 한동안 우두커니 그 자리에 선 채 스산한 방안만 휘둘러 보다 또다시 흙흙 느껴 울기 시작하였다.

어린 몸으로 온 종일 먹지도 못한 데다가 10리 길을 달려 왔으니 지칠 대로 지치였다. 방'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울다 그만 쪽잠이 들었다.

《꽝! 꽝! 꽝!》

요란한 폭음 소리에 정숙이는 소스라쳐 잠에서 깨여 났다.

순간 창문과 천정에 확하니 불이 당기는게 눈에 띄였다. 순식간에 불'길은 온 방안을 핥으며 돌아쳤다.

연기와 뜨거운 열 때문에 방향을 찾을 수 없었던 정숙이는 불'길을 피해 돌아 다니며 애끊는 목소리로 《엄마! 엄마!》하고 비명을 질렀다.

머리는 멩하고 눈 앞은 아찔하였다. 정숙이는 더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는 기진 맥진한 목소리로 열신 엄마를 찾으며 방'바닥에 쓰러졌다.

이때였다. 누구인가 문짝을 걷어 차며 방안으로 뛰여 들었다. 그는 방'바닥에 엎드려 정숙이를 더듬어 잡기가 바쁘게 밖으로 달려 나갔다.

정숙이가 정신이 들어 눈을 떴을 때는 환하게 밝은 아침이였다. 퉁퉁 부은 눈을 부비던 정숙이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하얀 침대 우에 포근한 국방색 군인 담요가 깔려 있는 것이 자기의 잠'자리였다. 정숙이는 눈이 휘둥글해서 사방을 두리번두리번 살펴 보았다. 자기가 누워 있는 집은 작은 아버지네 집이 아니라 알지 못할 낯선집이였다.

벽에는 전투 가방과 군복이 걸려 있었고 밖에서는 알지 못할 말소리가 도란도란 들려 왔다. 순간 정숙이는 아버지를 총탁으로 때리며 끌어다 죽인 미군놈들 생각이 번개처럼 지나갔다. 너무도 무서운 나머지 정숙이는 그만 《엄마!》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밖에서 세탁을 하고 있었던 지원군 아저씨들이 우르르 방안으로 몰려 왔다. 낯선 지원군들을 본 정숙이는 더욱 놀라며 벌떡 자리에서 일어 나려다 말고 쓰러졌다.

화상을 입은 몸이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다. 정숙이는 이때야 비로소 자기의 온 몸이 붕대투성이가 된 것을 알았다.

많은 아저씨들 중 왼손에 붕대를 감은 아저씨가 정숙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호 꾸냥, 호 꾸냥.》하고 달래이듯 말하였다. 그러나 정숙이는 무슨 말인지 통 알아 들을 수 없었다.

그는 더욱 몸을 움추린 채 곁을 주지 않았다. 금시 도망이라도 칠듯…

이 때 인자하게 생긴 아저씨 한 분이 정숙이 곁에 가까이 닥아 오시더니 《무서워하지 말어 이분들은 인민 군대를 도와 미국놈들을 물리치러 온 중국 인민 지원군 아저씨들이다…》 라고 조선말로 이야기하여 주었다. 그는 통역관 아저씨였다.

이 분들이 모두 중국 인민 지원군들이란 말에 정숙이는 그제야 긴 숨을 내쉬였다. 통역관 아저씨는 손에 부상을 당한 아저씨를 가리키며 정숙에게 이곳에 오게 된 사연을 알려 주었다.

세찬 불'길에 휩싸인 집에서 정숙이를 구원해 준 분은 바로 왕 평 아저씨였다.

이날 왕 평 아저씨는 련대에 련락 갔다 돌아오던 길에 정숙이의 비명 소리를 듣게 되였다. 왕 평 아저씨는 아무 것도 생각할 사이 없이 불타는 속으로 뛰여 들었다. 불'길은 사정 없이 왕 평 아저씨의 온 몸을 휘감았다. (비명 소리는 분명히 어린 아이의 목소리다. 내가 구원하지 않으면 그는 헤여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든 아저씨는 이를 악물고 숨 막히는 집안으로 뛰여 들어 갔다. 그는 방'바닥을 쓸어가며 정신을 잃고 쓰러진 정숙이를 품에 껴안았다. 뜨거운 불'길과 연기가 휩싸여 숨이 콱콱 막혀 왔다. 아저씨의 옷에도 불이 당기기 시작하였다. 아저씨는 불타는 자기 옷도 아랑곳 하지 않고 정숙이를 걸어 안기가 바쁘게 와락 밖으로 달려 나왔다.

왕 평 아저씨는 왼손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아픔도 잊고 청신 잃은 정숙이를 품에 안고 이십리 길을 거의 달음박질하여 사령부로 달려 왔던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난 정숙이의 뺨에는 두 줄기 뜨거운 눈물이 흘러 내렸다.

그러자 왕 평 아저씨는 《호! 호》하며 성한 손으로 정숙의 뺨을 적신 눈물 자국을 지워주었다.

통역관 아저씨는 정숙에게 어머니, 아버지에 대하여 물으시더니 지원군 아저씨들에게 통역하시는 것이였다. 통역관 아저씨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저씨들은 두 주먹들을 부르쥐고 반드시 네 원쑤를 갚아 주겠다고 웨쳤다.

이날부터 정숙이는 왕 평 아저씨가 계시는 지원군 사령부의 딸로서 자라게 되였다.

왕 평 아저씨는 물론 사령부 내의 모든 아저씨들은 정숙이를 자기들의 친 딸 이상으로 아끼고 사랑하였다.

그들은 맛 있는 음식이나 간식이 생기면 모두 앞을 다투어 정숙이한테 가져 왔다.

지원군 아저씨들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정숙이의 상처는 빨리 완쾌되여 갔다.

왕 평 아저씨는 짬만 있으면 정숙이 곁을 떠나지 않고 간호

하여 주었다.

어느 날 깊은 밤 정숙이는 너무도 감격하여 혼자 울기까지 했다.

정숙이가 깊은 잠이 들었다 눈을 떴을 때는 밤 두시였다. 정숙이를 간호하느라고 머리 맡에 앉아 계시던 왕 평 아저씨가 화상을 당한 팔을 이마에 고이고 졸고 계시였다.

마치 아버지처럼 미더워지는 왕 평 아저씨를 바라보던 정숙이는 눈물이 핑 돌았다.

왕 평 아저씨는 무슨 일이 있어 정숙이 곁을 떠나게 되는 때면 의례히 홍련이라고 하는 지원군 언니를 대신 앉히우고 나가군 하였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눈 내리는 추운 날이였다.

왕 평 아저씨가 어디선가 꽃무늬가 고운 천을 가지고 와서 홍련 언니에게 주시면서 정숙이의 옷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후에 안 일이지만 이것은 그가 부탁하여 집에서 보내온 천이였다.

지원군 언니는 그날부터 두툼한 솜을 넣어 정성껏 옷을 짓기 시작하였다.

홍련 언니는 정숙이를 곁에 앉히고 바느질을 하실 때면 의례히 그에게 바느질법도 가르쳐 주고 《동방홍》 노래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정숙에게서 조선말을 배우기도 하였다.

정숙이가 종알종알 이야기하다가 잠이 들었을 때도 지원군 언니는 잠든 정숙이 곁에서 밤이 깊도록 바느질을 계속하였다.

잠'결에 눈을 뜨고 지원군 언니를 바라볼 때마다 정숙이는 돌아 가신 자기 어머니와도 같이 생각되였다.

며칠 후 지원군 언니는 누벼서 만든 중국 꽃신까지 지어서 신겨 주었다.

며칠 동안 어디론가 갔다 오신 왕 평 아저씨는 새 옷 입은 정숙이의 모양과 꽃신을 보고 기뻐하시며 중국 인형을 안겨 주시였다.

이러한 지극한 사랑 속에서 정숙이는 고아의 설음 대신 행복하고 보람찬 나날을 보냈다.

재해가 지나 정숙이의 나이도 여덟살이 되였다.

따뜻한 봄이 돌아 온 어느 날이였다.

왕 평 아저씨는 조선 옷 차림을 한 젊은 녀자 한 분을 데리고 오시였다. 그 분은 초등 학원 선생님이였던 것이다.

왕 평 아저씨네 사령부는 전방 가까이 이동하게 되였다. 그 뿐만 아니라 공부할 나이가 찬 정숙이의 학습 때문에 왕 평 아저씨는 늘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때 마침 초등 학원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왕 평 아저씨는 학원에 찾아 갔던 것이다. 그래 선생님이 아저씨와 같이 정숙이를 데리러 오시게 되였다.

아저씨는 정숙이와 헤여지는 것이 말할 수 없이 섭섭하였으나 정숙이를 위해 떠나 보내는 수밖에 없었다.

정숙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왕 평 아저씨의 가슴에 안기였다.

왕 평 아저씨의 두 눈에도 눈물이 어리였다. 《정숙아! 너의 아버지, 어머니를 빼앗은 원쑤놈들을 물리치고 돌아 올게! 그날까지 부디 몸조심해라!》 왕 평 아저씨는 가슴에 꼭 껴안으며 몇번이고 거듭 말하였다.

아저씨는 어느새 마련하셨는지 공책과 연필, 빨간 수첩을 책보에 싸서 정숙에게 안겨 주시였다. 홍련 언니도 정성껏 만든 수건을 선물로 주시였고 여러 아저씨들도 각가지 일용품이며 세면 도구들을 선물로 주시였다.

이 광경을 보고 계시던 학원 선생님도 감격의 눈물을 지으셨다.

이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정숙이와 왕 평 아저씨 사이에는 끊을 수 없는 사연을 담은 편지가 오고 간다.

정숙이는 지금 자강도 별오 초등 학원에서 최우등생으로 공부하고 있으며 모범 소년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왕 평 아저씨는 지금 자기 고향에서 용해공으로 대약진 운동의 선두에서 일하고 계신다.

얼마전 왕 평 아저씨가 보내온 편지에는 국경절 10주년을 앞두고 생산에서 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다.

이 편지를 받은 정숙이는 아저씨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국경절 10주년을 축하하는 축하의 편지를 정성껏 써 보냈다.

정숙이가 아저씨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에는 이런 말이 씌여 있었다.

《아저씨! 나는 부모를 잃은 사람이지만 결코 외롭지 않아요. 나는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나의 아버지에게 쓰는 마음으로 아저씨에게 편지를 쓰군 합니다.》

일동—할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척척 할아버지—오냐, 그래 이번엔 무슨 문제들을 가지고 왔니?

용남—얼마전 쏘련에서 발사한 제 2 우주 로케트와 제 3 우주 로케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러 왔어요.

경식—그러구 앞날의 우주 려행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듣구요.

척척 할아버지—음, 아주 흥미 있는 문제들인걸, 이번에 쏘련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이 만들어 낸 제 2 우주 로케트는 평양 시간으로 9월 12일 21시에 달을 향해 발사했는데 9월 14일 6시 2분 24초에 달에 가 닿았지.

용남--아니 그럼 달까지 가는데 33시간 2분 24초 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경식—난 지난 여름 방학에 평양에서 기차를 타구 라진 외할머니네 집에 가는 것도 33시간이 더 걸렸는데요, 달과 지구의 거리는 아주 가깝구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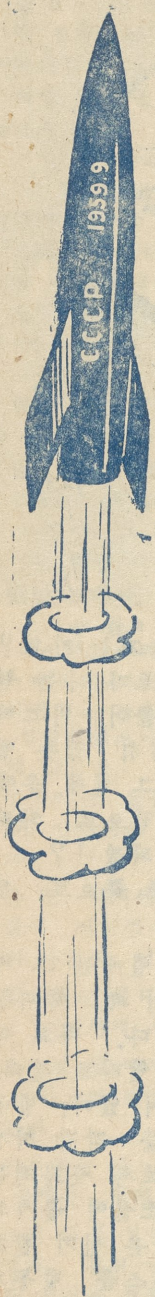
척척 할아버지—달과 지구의 거리가 가까운 것이 아니라 로케트가 그렇게 빨리 날았지,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는 평균 거리가 38만 4천 386km이란다. 이 거리는 세계에서 제일 빠른 최신식 렬차로 쉬지 않고 밤낮 달려도 1년이 걸리구 쏘련의 최신식 비행기 《뚜—104》로 가도 20주야가 걸린단다.

경식—야 굉장이 멀구나. 할아버지, 그런데 그 로케트는 어떻게 날아 가는 가요?

척척 할아버지—그럼. 로케트가 나는 원리부터 이야기하자. 실례를 들어 미끄러운 얼음 우에 사람을 싣고 멈춰 있는 썰매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그 썰매 우에 섰던 사람이 갑자기 어떤 방향으로 와락 내닫는다면 썰매는 어떻게 되겠니?

경식—그야 사람이 뛴 반대 쪽으로 썰매가 가지요.

척척 할아버지—그렇다. 썰매는 그 사람의 반발력을 받아서 사람이 뛴 쪽과는 정 반대 방향으로 달리게 된다. 바로 이 운동 원리가 로케트의 운동 원리로 된다. 로케트에는 발동 장치가 되여 있다. 발동기에는 액체 연료와 산화제를 각각 저장한 큰 탕크가 있는데 이 연료와 산화제는 제각기 분무기를 통하여 연소실에 분사된단다. 이때 이 연료 혼합물은 전기 발화선에 의하여 폭발하면서 가스를 발동기 뒤'꽁무니로 내뿜게 된다. 내뿜는 이 가스는 마치 사람이 썰매 우에 섰다가 반발력을 주면서 내뛰듯이 로케트 발동기에 반발력을 주면서 내뿜기 때문에 로케트는 앞으로 내닫게 된단다.

경식—네 잘 알았어요. 할아버지 그런데 이번에 쏘련의 과학자들은 한두 키로도 아닌 그처럼 먼 거리에 있는 달에 우주 로케트를 어떻게 단번에 명중시켰을

가요?

척척 할아버지—거리도 문제이지, 그러나 그것 쯤은 아무 것도 아니다.

용남—그럼 그보다도 더 어려운 문제가 있나요?

척척 할아버지—달은 말뚝처럼 움직이지 않고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운동하고 있다는 그것이다. 달은 매초 1.02km의 속도로 지구 주위를 달리고 있단다. 그러나 한 시간 동안이면 벌써 3천 680km를 달리는 셈이 아니냐,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내닫는 달을 그 먼 거리에서 명중시켰으니 글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일동—야!

척척 할아버지—그러기 지금 전 세계가 쏘베트 과학 기술 성과에 경탄하여 막 들끓고 있지 않니, 이것은 최고도로 발전된 세계 1등의 쏘베트 과학 기술이 아니고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미국은 주먹만 한 위성이라도 쏘아 올리려고 바득바득 애를 쓰고 있지만 거듭 실패를 가져 오고 있다.

용남—그럼 이번 쏘련의 제 2 우주 로케트가 지구에서 발사하여 달까지 가는데 30 여 시간이 걸렸는데 1 시간에도 수천 km씩 달리는 달에 어떻게 명중했을가요?

척척 할아버지—그것은 목표를 정확히 계산해 낸 데 있지, 목표를 정하기 위하여서는 우주 로케트의 운동 속도, 그에 대한 지구와 달 태양의 인력 영향, 비행이 끝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리고 달의 운동 속도와 거리, 운동 방향 등등을 정확히 계산하여 달과 로케트가 서로 마주치는 그런 점을 향하여 로케트를 발사해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발사시 속도에서 매초 1m, 각도에서 1도의 오차가 있어도 로케트는 달에 명중할 수 없다.

경식—할아버지 만일 로케트가 날아 가는 도중에 자기가 가야 할 길에서 리탈되기 시작하면 바로 잡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척척 할아버지—경식이 말처럼 로케트는 나는 도중 자기의 궤도에서 약간의 리탈이 있을 수 있다. 만일 매우 작은 리탈도 그냥 두면 시간이 지나감과 함께 점차 커져서 나중에는 목적하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날아 가고 만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짐작하고 이번 쏘련의 제 2 우주 로케트에는 목적지에 가도록 자동적으로 바로 잡는 말하자면 운전수 격인 유도 장치가 되여 있단다.

경식—야, 쏘련의 과학은 정말 놀라워

용남—할아버지 그럼 로케트에 유도 장치만 하면 어떤 곳이건 자기가 보내고 싶은 곳에 날려 보낼 수 있겠구만요?

척척 할아버지—그렇지. 그러기 지금 미국의 전쟁 미치광이들은 쏘련의 제 2, 제 3 우주 로케트 발사에 놀라 입을 떡 벌리고 나자빠져서 벌벌 떨고 있지 않니, 만일 놈들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놈들이 지구상 어디에 있든지간에 단숨에 없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미국 전쟁 미치광이들이 감히 전쟁을 떠벌리지 못하게 됐지!

용남—우주 로케트는 전쟁 미치광이들의 광'증을 고쳐주는 데 좋은 《약》이구만요.

척척 할아버지—허허…옳게 말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 인민들은 쏘련의 제 2 우주 로케트를 가리켜 《평화의 사절》이라고들 부르고 있는게 란다.

경식—할아버지 달 나라로 가는 지구의 첫 선발대는 언제나 떠나게 될가요?

척척 할아버지—허허… 네가 먼저 가고 싶은게로구나, 너무 조급해 말아, 달 나라 려행은 아주 가까운 장래에 실행된다. 지금 쏘련의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은 7개년 계획 기간에 이것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단다.

용남—할아버지,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실현될가요?

척척 할아버지—물론 처음에는 로케트를 달 나라에 날려 보내는 것이다. 이 로케트는 달 나라로 가면서 달의 표면이나 달과 지구와의 사이에 사람의 몸에 해로운 방사선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한다. 그리고 지구 주위에나 달 주위에 얼마나 센 자기 마당의 층이 있는가 하는 것도 조사한다. 이 모든 것들을 조사 연구하고 만일 사람의 몸에 해로운 방사선이 있다면 그것을 막을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출발해야 안전한 려행을 할 수 있다.

바로 이번 쏘련의 제 2 우주 로케트에는 이러한 것들을 조사 연구하는 기구들이 들어 있었는데 로케트는 비행하면서 이 모든 자료들을 조사하여 지구에 전달했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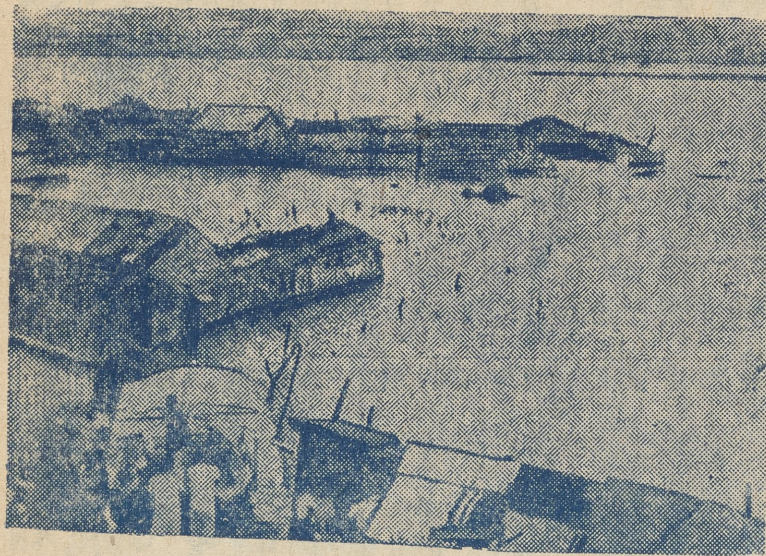
다음에는 달 주위에 대한 탐사 비행이 수행된다. 자동 전달 장치, (무전기) 테레비존 장치, 각종 과학 연구 자동 측정 기구 및 기타를 갖춘 로케트는 달 주위를 날면서 달의 대기권, 달의 표면 구조, 온도, 자기 마당 등에 대하여 관측도 하고 촬영도 하여 그에 대한 정확한 자료들을 자동 장치로 지구에 전달한다. 바로 지난 10월 4일에 발사한 제 3 우주 로케트가 지금 이 일을 훌륭히 실행하고 있다. 제 3 우주 로케트의 마지막 계단에는 달 주위를 따라 도는 행성간 자동 정류소가 설치되였는 데 이 행성간 자동 정류소는 지금 예정된 궤도를 따라 정확하게 달 주위를 돌면서 우주 공간에서의 광범한 과학 연구 자료들을 지구에 전해 주고 있다. 다음 단계는 자동 전달 장치, 테레비존 장치, 각종 과학 연구 자동 측정 기구 등을 가진 많은 로케트들이 달 나라의 사방에 내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달에 대한 연구를 더 구체적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달 나라에 대한 완전한 연구를 한 다음 달 나라를 향해 《영웅들과 용사》들이 출발하게 된단다.

경식—할아버지, 앞으로 려행하게 될 저 달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척척 할아버지—달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로부터 제일 가까이 있는 천체이고 지구의 자연 위성이다. 달은 타원형의 궤도를 따라 27일 7시간 43분 11초 동안에 지구 주위를 한 바퀴씩 돌고 있다. 그리고 달의 직경은 3,476km인데 이는 지구의 직경의 약 $\frac{1}{4}$ 밖에 되지 않는다. 밀도도 작기 때문에 달 표면의 인력은 지구 인력의 $\frac{1}{6}$ 밖에 안된다. 따라서 경식이의 체중이 지금 30kg이라면 달 나라에 가서는 5kg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달 나라에 가면 아주 딴 생활 조건에 부딪치게 된다. 우선 체중이 6 배나 적어진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 그리고 달에는 물이 없고 공기층이 없기 때문에 그의 표면 온도는 낮에는 뜨거운 태양 광선을 막을 수가 없어서 150도까지 오르게 되고 반면에 밤에는 급격히 차져서 령하 160도로 내려 간다. 그래서 달 나라에 갈 때 사람들은 산소 호흡기와 온도 조절 장치가 달린 특별 비행복을 입어야 한다. 그리고 공기가 없기 때문에 지구상에서처럼 소리를 전달할 수 없다. 때문에 달 세계에 탐사자들의 비행모에는 서로 련락을 할 수 있는 소형 송수신기가 달려 있어야 한단다.

용남—잘 알았어요. 정말 재미 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용남, 경식—그럼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척척할아버지—오냐 다음 달에 또 만나자.

대홍수로 인하여 물에 잠긴 한강 류역 마을

폭풍이 분다, 비가 내린다, 삽시간에 홍수는 온 누리를 휩쓸어 간다.

검붉은 물'결 속에 들려오는 처참한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 떠 내려 가는 가장 집물들, 전야와 가족들을 잃고 통곡하는 사람들의 울음 소리……

이는 지금 우리 나라 남쪽 땅에서 버러지고 있는 참상이다.

지금 남쪽 땅에는 98만 8천 6백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 치며 통곡하고 있다.

이 얼마나 몸서리치는 일인가?

우리가 행복의 보금자리에서 포근히 잠자고 있을 때 남쪽 땅의 수많은 아버지, 어머니들과 어린 아이들은 무서운 홍수에 밀리여 공포와 죽음 속에서 아우성치고 있다.

거제도만 놓고 보더라도 이 섬은 전멸 상태에 빠지고 있다. 이 섬에서 물'결에 떠내려간 집만 해도 702 동이나 되며 바다'가에 자리 잡고 있던 마을은 모래와 자갈로 뒤덮여 옛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였다.

갖은 압박과 착취를 당하면서도 한 해 여름 애써 가꾼 곡식은 하루'밤 사이에 물에 떠 내려 가고 말았다. 남반부 농민들의 살'길은 가로 막혔고 이들 앞에는 오직 무서운 굶주림과 고통만이 남았다.

집과 전야와 가족을 잃은 수많은 남반부 인민들은 헤여날 길 없는 불행의 구렁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 알몸뚱이 하나로 뛰쳐 나온 이들에게는 지금 찬 서리 내리고 머지 않아서는 설한풍이 휘몰아 치는 겨울이 기다리고 있다.

오늘 우리의 원쑤 미제와 리 승만 역도놈들은 이번의 이 물 란리를 뻔뻔스럽게도 하늘이 한 것이니 산 신령이 조작해 낸 것이라고 거짓을 꾸며 대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미제와 리 승만 역도놈들이 빚어 낸 죄악의 결과인 것이다.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이 살며 함께 비를 맞는 공화국 북반부에는

어찌 한시 인들

물란리란 말조차 없어 진지 오래다.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옳바른 시책에 의해 우리 나라는 가물과 물란리를 모르는 풍년만이 깃드는 땅우의 락원으로 변하였다. 이는 인민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큰 땀 흘려 싸우고 있는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가 산과 물을 잘 다스린 때문인 것이다.

오늘 남반부의 아버지, 어머니와 어린 이들이 겪고 있는 이 불행은 오직 미제와 리 승만 역도놈들 때문인 것이다.

놈들은 인민들이 마음 놓고 잘 살도록 산을 다스리고 물을 다스릴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고 오직 새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준비에 미쳐 날뛰고 있을 뿐이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리재민들의 사정은 위급하다. 그들은 당장

입을 것도, 먹을 것도, 집도 없는 한지에 나앉았다. 이들의 불행을 도울 길 없는 리 승만 역도는 오히려 인민더러 이들을 도와 나서라고 어리석은 수작을 늘여 놓고 있다.

언제, 어느때나 불행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남반부 인민들을 항상 가슴 아프게 생각하여 온 공화국 정부는 이번 또다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따뜻한 손'길을 뻗쳤다.

즉 지난 9월 23일 공화국 정부는 내각 결정 제 60호를 채택하고 물란리에 나앉은 남반부 리재민들에게 우선

백미	3만 석
직물	100만 마
신발	10만 켤레
목재	150만 재

의 구호 물자를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남반부 인민들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있으며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을 첫째가는 의무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변함 없는 한형제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인 것이다.

지금도 우리의 귀'전에는 애타게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들의 신음 소리가 울려 온다. 그들은 한시 바삐 구원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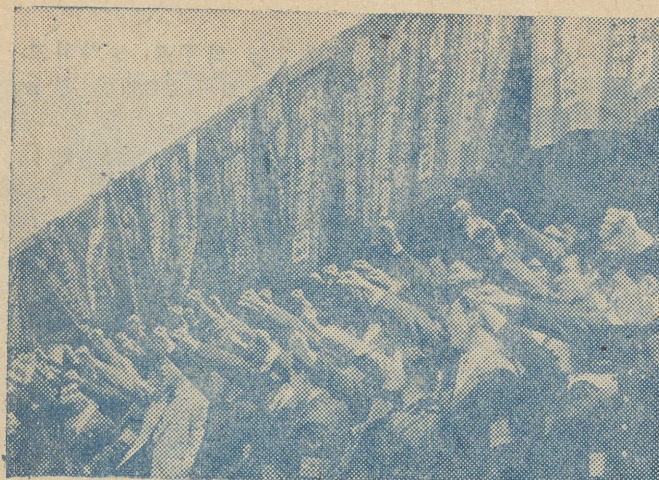
우리는 남반부 인민들의 이 몸서리치는 참상을 한 시도 보고만 있을 수 없다.

그들을 생각할 수록 우리의 가슴은 터질듯 아파난다.

우리 인민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공화국 정부가 보내는 구호 물자는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남반부 인민들에게 당장 가 닿아야 한다. 아울러 이번 물란리에 모든 것을 잃고 살'길을 찾아 공화국 북반부에 들어 올 것을 원하는 리재민들은 한시 바삐 우리의 품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수해를 입은 남조선 인민들

《우리는 일본 정부의 어떠한 방해 책동이라도 물리치고 조국에로 귀국하기 위하여 동포들의 선두에서 열렬히 싸우겠다》고 결의하는《청년 귀국 행동대》

동요 어서 오세요

재일 형제 기다려
오래전에 사다 둔 공책 필갑은
안타까운 내 마음도 모르고
자꾸만 자꾸만 낡아만 가요

나는 그래도 기다려요
어서 돌아 올 것을
낡은 건 내가 쓰고
새것 사면 그만인데요

모든 준빈 다 됐어요
먹을 것도 새 집도 학교도 모두
재일 형제 기다려 마련되고
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려요

그런데 웬 일일가요
왜 아직도 오지 않을가
나는 정말 안타까워
애가 타서 죽겠어요

나는나는 알았어요
오는 길 막는 놈 누구인가를,
그놈들은 바로 미국놈과 리 승만
그리구 배짱 맞은 기시놈임을

황북도 은파군 양동 중학교
(초급반) 제 3학년 정 지섭

공화국에로의 귀국을 희망하여 오사까부 궐기 대회에 참가한 1만 5천여명의 재일 동포들은 하루 속히 조국으로 돌려 보내 줄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날은 오고야 말 것이다!

그리운 조국으로 돌아 간다고
밤을 새워 짐도 싸고
길 차비도 끝냈는데
우리는 우리는 떠나지 못해요
안타까워 바다'가에 나서면
수평선 넘어 멀리 조국의 하늘이
못내 그리워 어서 오라 손을 저어요

이 시는 조국으로 돌아 올 차비를 끝내고 애타게 떠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일본 이바라기 현 초등 학교에 다니는 박 신자 동무가 자기의 간절한 마음을 노래한 시입니다. 이 마음은 일본에 있는 전체 조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항상 동포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일찌기 일본에서 갖은 멸시와 고통을 받고 있는 조선 동포들을 모두 조국의 품으로 받아 들이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8월에는 공화국 적십자 대표와 일본 적십자 대표간에 그리운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로 돌아 오려는 재일 동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 약속도 맺게 되였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들은 조국으로 돌아오는 재일 동포들을 맞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지금 공화국 정부는 오랜 세월 이국 땅에서 일'자리도 없이 고생에 고생을 거듭해 온 어른들을 위해서는 훌륭한 일터를 마련해 놓았고 배움에 굶주린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그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학교들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조국 땅에 첫 발을 들여 놓는 그때부터 아무런 걱정 근심도 없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먹을 것과 집들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우리들 소년단원들은 지금 일본에 있는 그리운 조선의 어린이들이 하루속히 돌아와 같이 어깨 겯고 학교에 다닐 그날을 그리며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재일 동포들이 조국으로 돌아 오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형편은 어떻게 되였습니까?

악독한 미제와 리 승만 역도놈들과 한 배짱인 기시 정부는 우리와 맺은 약속을 위반하면서 별의별 구실을 붙여가며 재일 동포들의 귀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미제와 리 승만 역도놈들의 장단에 발을 맞추고 있는 기시 정부는 당당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공민들인 재일 동포들을 모욕하는 참을 수 없는 악랄한 짓들을 꾸며 대고 있습니다.

놈들은 우리와 그렇게도 굳게 약속한 모든 것을 짓밟아 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원래 조국으로 돌아 오려는 재일 동포들에 대하여는 그 어떠한 조사도 확인도 하지 못하게 되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놈들은 떠나는 사람들은 어른이건 아이이건 모두 비밀 방에 불러 들여다 확인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더우기 참을 수 없는 일은 떠나는 항구로 가는 도중 사람들은 기차 밖도 내다 볼 수 없으며 공화국 기'발도 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악착하고 가소로운 짓입니까, 자기 조국으로 돌아 오려는 재일 동포들이 무슨《죄》를 지었기에 비밀 방에서 조사를 당해야 하며 어두컴컴한 기차에 실리워 다녀야 한단 말입니까!

이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조선 인민에 대한 모욕인 것입니다.

이 사실이 전해지자 전체 조선 인민은 놈들의 이 악착한 짓들을 반대 항의하여 일떠섰습니다.

일본 당국놈들의 배짱은 뻔한 것입니다. 놈들은 그리운 조국으로 돌아 오려는 재일 동포들을 미끼로 삼아 리 승만 역도놈들과 흉칙스런 흥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놈들이 제아무리 간교한 짓을 다 한다 하여도 조국으로 돌아 오려는 재일 동포들의 삶과 희망의 길을 가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재일 동포들은 어떠한 일이 있다하드래도 반드시 사랑하는 자기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품안으로 돌아 오고야 말 것입니다.

누가 명수인가

이 유희는 학교에서 휴식 시간이나 또는 과외 시간에 동무들과 같이 뽈을 가지고 흥겹게 놀 수 있는 유희이다.

유희자들을 짜는 방법

유희는 10~15 명 정도로써 할 수 있다. 유희자들은 원형(7~8M의 직경)을 만들고 한 명을 원내에 내세운다.

유희하는 방법

유희는 원외의 유희자들이 배구뽈로 원내의 유희자들을 공격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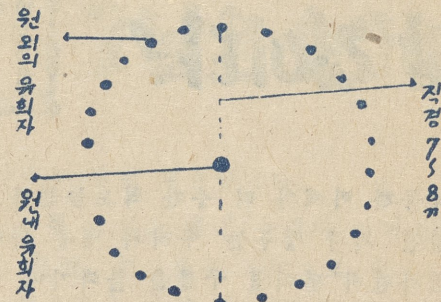
원내의 유희자는 원외의 유희자들의 공격을 피하거나 또는 막아 내도록 노력한다.

원내의 유희자에 대한 공격은 뽈로써 던져 맞치도록 하며

원내의 유희자는 뽈에 맞지 않도록 몸을 피하거나 또는 뽈을 땅에 떨어뜨리지 말고 잘 받도록 해야 한다.

원내의 유희자는 여러 차례(6회)의 공격 뽈을 잘 피하면 승리자로 된다.

원외의 유희자가 원내의 유희자를 바로 맞치게 되면(원내의 유희자가 받지 못한 뽈을 말한다)맞친 유희자가《내가 명수이다》라고 하면서 원내의 유희자와 바꾸어 원내로 들어간다. 그리고 유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

유희는 누가 원내에 들어가 공격 뽈을 피하거나 막아내면서 오래 견딜 수 있는가를 자랑으로 한다.

누가 앞장 섰나

이 유희는 동무들과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유쾌하게 노는 유희이다.

유희자들을 짜는 방법

유희자들 중 한 명의 유희자를 뽑아 놓고 기타의 유희자들은 원형을 만들어 둥굴게 선다. 뽑힌 한 명의 유희자는 원내에 서게 한다.

유희하는 방법

《준비》에 의하여 원내의 유희자는 눈을 가리운다. 원을 지은 유희자들은 서로 약속을 하고 대렬 지휘자 《앞장》을 내세운다. 이는 원내의 유희자가 모르게 하여야 한다.

《시작》의 신호에 의하여 원내의 유희자는 눈을 가리운 수건을 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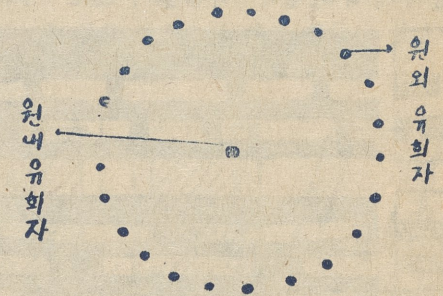
원을 지은 유희자들은 원내의 유희자에게 들키지 않도록 노래를 부르며 박자에 맞추어 이러 저러한 동작을 취하면서 원형 행진을 한다. 행진간의 동작은 노래의 구절에 따라 또는 수시로 동작을 바꿔가면서 실시하여야 한다. 동작은 어느 한 곡을 부르는 동안에 4~5회 이상 바꿔가면서 하여야 한다.

원내의 유희자는 행진을 하면서 동작을 지휘하는 《앞장》이 누구인가를 찾아내도록 노력한다.

원내의 유희자는 노래의 한 곡이 끝나기 전에 지휘자를 알아내여 《차렷》의 구령을 쳐서 행진을 멈추게 하고 유희자들을 원내로 향하게 한다. 만약 원내의 유희자가 노래의 한 곡을 끝마칠 때 까지도 지휘자를 알아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희자들은 스스로 행진을 멈추고 원내를 향하여 《누가 앞장인가》하고 소리친다.

유희자들이 행진을 멈추고 원내를 향하면 유희자는 원 밖으로 나가 원을 돌면서 지휘자로 인정된 유희자에 접근하여 그를 손으로 맞치도록 한다.

그러나 원내의 지휘자가 지휘자를 알아내지 못할 때는 지휘자는 원밖에 나와 선 원내의 유희자를 먼저 손으로 맞치도록 한다. 그리고 지휘자는 인차 자기가 돌고 싶은 방향으로 원을 돌아 자기 자리로 들아 가야 한다. 이때 원내 유희자는 지휘자와 반대 방향으로 원을 돌아 지휘자보다 먼저 그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노력한다.

유희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유희자를 즉 원내의 유희자 또는 지휘자 중의 어느 한 명은 원내로 들어 가게 하고 유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우화: 빼기던 큰 나무

학교 뒤 언덕 밑에
크고 작은 두 나무 살고 있었네

그런데 어느날—
《이쪽 나무가 더 크구나!》
지나가던 《록화근위대》원들 하는 말에
큰 나무 슬그머니 우쭐 해 졌네

며칠이 지난 후—
큰 나무는 응달의 싱아'대 모양
자기 힘 타산 없이 키만 훌썩 자랐네

《자네, 뿌리를 든든히 박고 키도 커야지.》
작은 나무 여러번 충고 했으나
《키 크면 제일이지》 빼기던 큰 나무
바다'바람 세게 불어 넘어졌다네

마땅히 자기 힘 타산치 않고
쓸데없이 우쭐대다 넘어진 큰 나무
이 나무 보고도 웃지 못할 아이가
우리 곁엔 없는가 살펴 봅시다.

황남 삼천군 금천 중학교 김 선지

동요 보내줄래요

영양단지 목화송이
탐스럽게 피였네
선들선들 갈 바람에
활짝 피였네

누더기 걸치고
거리거리 헤매는
남조선 우리 형제
구원해 주게

영양단지 목화송이
탐스러운 목화송이
한바구니 가득 따서
공장으로 보낼래요

재일 동포 돌아 오면
새옷 해 주게
한바구니 가득 따서
공장으로 보낼래요

평북 선천군 토하 농업 협동 조합
전 병남

어떻게 환경을 아름답게 꾸릴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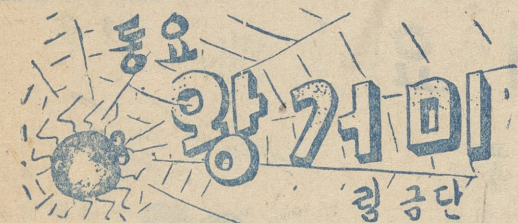
조 화 석

사람의 문화 수준이 높으면 높을 수록 자기 환경을 아름답게 꾸릴 줄 알며 자기 몸도 깨끗이 가질 줄 안다. 소년단원 동무들이 공부하는 교실과 자기 집을 아름답게 정돈하는 문제는 바로 동무들의 문화 수준을 말하는 것이다. 연필과 고무를 필통에 넣어 제 자리에 놓고 책상 우에 수상님 초상화를 액틀에 넣어 세우고 아름다운 무늬들로 소지품과 유리창을 장식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여기에 자기 환경을 아름답게 정돈하기 위하여 자기 손으로 능히 만들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한 물건들을 소개한다.

무늬 만들기

우선 우리들의 일용품이라든가 방 안을 아름답게 하는 데는 장식 무늬가 필요하다. 때문에 우리 생활에 리용될 수 있는 무늬와 그의 만드는 방법을 소개한다.

다음의 무늬들을 기본적으로 하면 여러 가지 무늬들을 만들 수 있다.

천장구석에서 쫓겨난 왕거미
푸른잎 우거진 가로수 잎 새에
몰래몰래 숨어서 거미줄 쳐요,
오래도록 살자고 집을 지어요,

파리도 어서 와 걸리라고요
모기도 넝큼 와 붙으라고요
가만히 앉아서 바람 쐬이며
먹을 걱정 모르고 살아 보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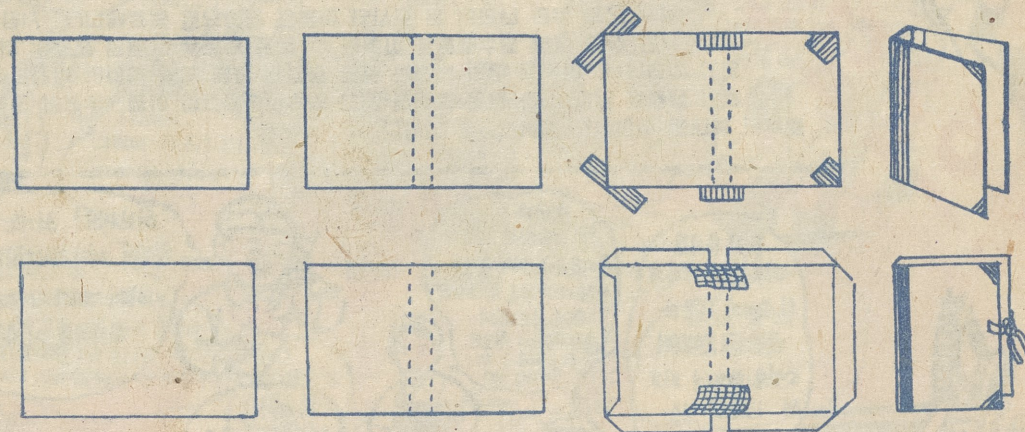
하늘하늘 바람'결에 그네를 뛰며
늘어진 팔자 자랑 기가 막힌데
웬 일인지 모기, 파린 오질 안누나
배 고파 허리 죄도 오질 안누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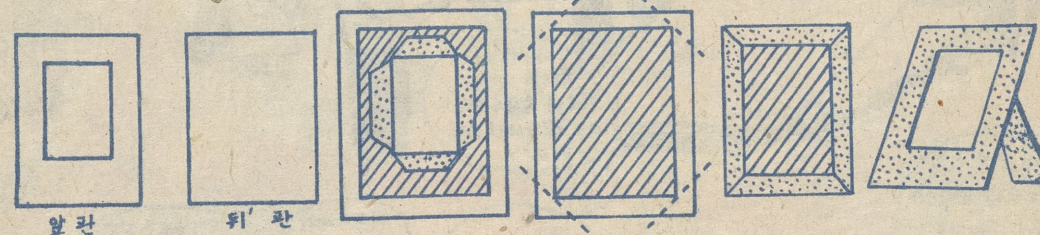
허리가 토막나도 할 수 없는 일
저 주자고 모기, 파리 남겨뒀을가
분단 동무 모조리 잡고 잡아서
밤낮으로 부지런히 없애버렸는데

더더구나 하늘 높이 비행기 떠서
보슬보슬 약비를 보내 줬으니
어디서 모기 파리 먹어 볼가
이제는 저마저 죽게 됐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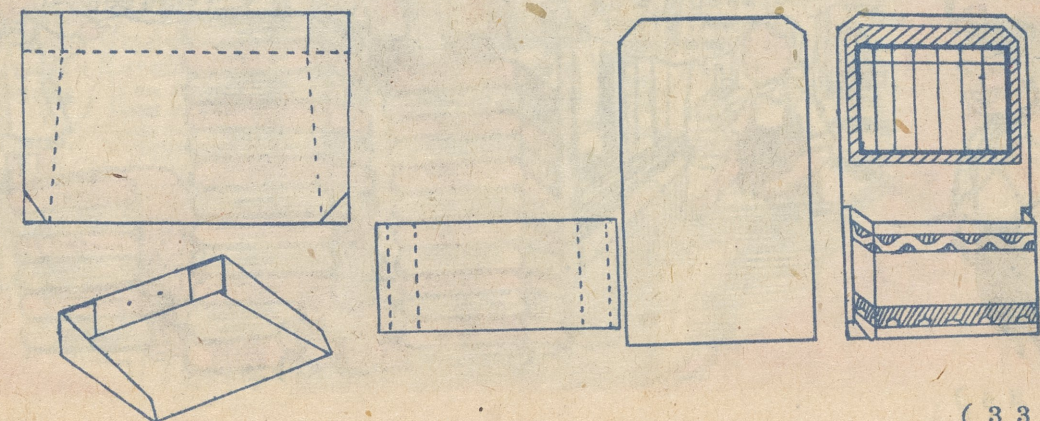
책 보관, 표지 만들기

1은 책 표지이고, 2는 서류 보관첩이다. 두꺼운 마분지를 그림 1과 같이 교과서 크기로 재단하자. 그리고 흰 종이나 색 종이로 바른 다음 네 귀에 색 다른 종이로 장식을 하고 꺾는 곳은 헝겊으로 바른다. 표지에 무늬를 오려 붙이면 더욱 아름답다.

2는 1을 약간 더 발전시킨 것이다.

사진액틀 만들기

교과서 크기로 제도를 하고 사진 넣을 곳은 엽서 크기만한 구형이나 타원형으로 오려 낸다. 만드는 방법은 그림 1과 같은 크기의 마분지를 두 장 장만하고 그 중 하나는 사진 끼울 구멍을 만든다. 두 장을 각각 종이로 발라 곱게 만든 다음 두 장을 겹쳐서 맞대고 붙이며 뒤'면에는 세울 수 있는 벋침대를 따로 만들어 붙인다. 앞면은 무늬로 장식한다.

쓰레 받기와 통장 넣는 통 만들기

쓰레 받기도 교과서보다 약간 크게 만든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도할 때 우보다 아래를 약간 넓게 한다. 제도하여 베고 꺾은 다음풀로 붙이고 앞뒤를 종이로 튼튼히 바른다.

통장 넣는 통은 시간표도 겸하여 만든다. 도해에 의하여 제작법을 연구하여 보자.

공장으로 덮인 우리 조국땅

소년단원 동무들! 새로 나온 우리 나라의 경제 지도를 펼쳐 봅시다. 지난날 지도상에 없던 공장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바로 동무들이 살고 있는 고향 마을에 만도 새로생겨난 공장이 얼마나 많아요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1958년 6월 전원회의 이후 짧은 기간내에 우리 나라에는 1,000 여개의 공장이 새로 건설 되였답니다. 이것은 해방후 10년 동안 건설한 지방 산업 및 생산 협동 조합의 공장 수 보다도 더 많은 것이지요.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는 생산 협동 조합 까지 포함하여 2,080 여개의 지방 공업 기업소들을 가지게 되였지요. 이것은 우리 나라의 매개 시, 군에 평균 11개씩의 공장이 있는 것으로 됩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 나라의 온 도시와 마을은 공장으로 덮혔습니다. 지금 이 공장들에서는 각종 생활 필수품들을 비롯한 수 많은 제품들이 매일 폭포수 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나라는 중앙 공업과 함께 지방 공업이 발전되여 우리 인민들의 생활은 날을 따라 더욱 풍족해 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전화 통신원》들로부터 보내온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합시다.

비둘기가 물고온 소식

소년단원 동무들! 나는 지금 황금 물'결 넘실거리며 풍년의 노래 울려 퍼지는 전야들을 굽어 보며 황해남도 신천군 룡당 중학교를 찾아 왔습니다.

나는 한 해 여름 학교 실습지와 시험 포전에서 배운 지식을 익혀가며 훌륭한 열매를 맺어 기뻐하고 있는 이곳 소년 단원들과 만났습니다.

어떻게 배운 지식으로 그런 훌륭한 열매를 맺었는가구요?

그것은 다음의 사건들이 말해 줄겁니다.

《야! 그 목화송이 탐스럽기도 하다.》

《비둘기 동무! 우리는 이 목화를 영양 단지 가식법을 적용하여 정성껏 가꾸었지요. 우린 지금 목화 한 대에서 70 송이까지 따고 있답니다.》 목화를 따고 있던 민 북녀 동무는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비둘기 동무! 이 옥수수를 키우면서 우리는 교재에서 배운 종자 개량법을 훌륭히 실습했답니다. 백색 마치종과 황색 마치종의 화분을 교배해서 이런 훌륭한 종류를 만들었지요. 래년에는 여기에 황색 마치종을 다시 교배해서 맛 좋고 수확 많은 새로운 황색 마치종을 만들어 낼 계획입니다.》 옥수수를 가을하던 리 정무 동무가 하는 말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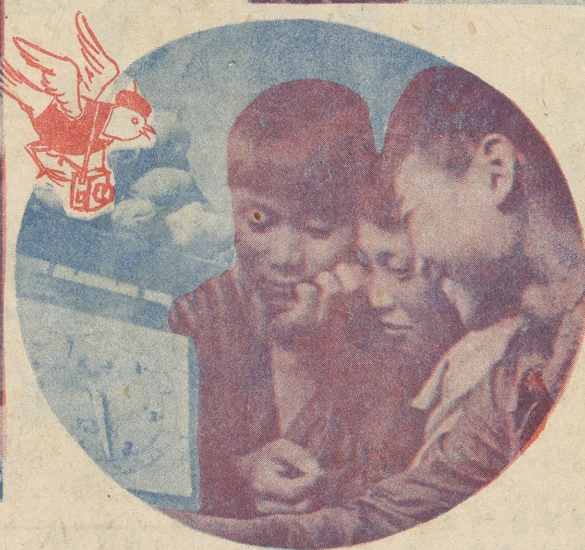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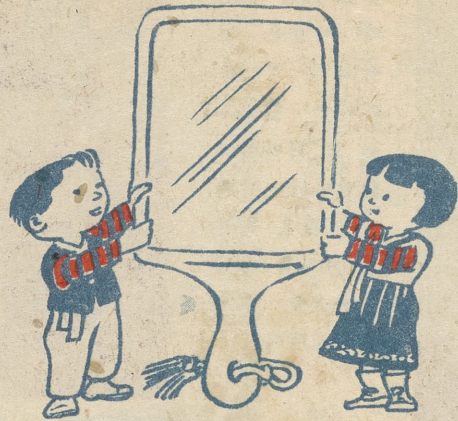
《놀라지 마세요. 이 많은 수세미 오이는 한 포기의 덩굴에 열린거랍니다. 몇 개나 열렸는가구요? 52 개나 열렸답니다.》《참 기특한 일이군요. 어떤 방법으로 가꾸었길래 이렇게 많은 수세미 오이가 열렸어요?》

《방법은 별 것 아니랍니다. 수세미 오이는 영양을 많이 취할 수록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을 알고 한 포기의 수세미 오이에다 20kg의 자급 비료를 주었을 뿐이지요.》

이들이 가꾼 해바라기와 피마주도 아주 훌륭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꿩 먹고 알 먹기로 피마주 잎으로는 또 피마잠도 쳤답니다. 이리하여 많은 피마주 고치를 따서 수매소에 수매 시켰답니다.

《아니, 그게 한 포기에서 거둔 감자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한 포기에서 45알의 감자를 캤습니다. 4K 200g이나 나가지요. 우리는 감자를 가꾸면서 무엇보다 종자를 잘 선택해야 한다는 것과 관수를 과학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이들이 안고 있는 탐스러운 벼 이삭을 보십시요. 이들은 교과서에서 배운 벼 재배법과 심경 밀식을 훌륭히 적용하여 900 평의 벼 시험 포전에서 정당 19 톤의 수확을 예견하고 있답니다.

행동의 거울

우리의 행동의 거울은 황해남도 신천 고급 중학교 대 제 7분단 황 정옥 동무의 행동을 날날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웃 어린 아이가 자기 동생과 싸우고 있는 가운데 뛰여 들어 자기 동생의 편을 들면서 이웃 어린아이를 막 때려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소년단원다운 행동일가요?

꾀 돌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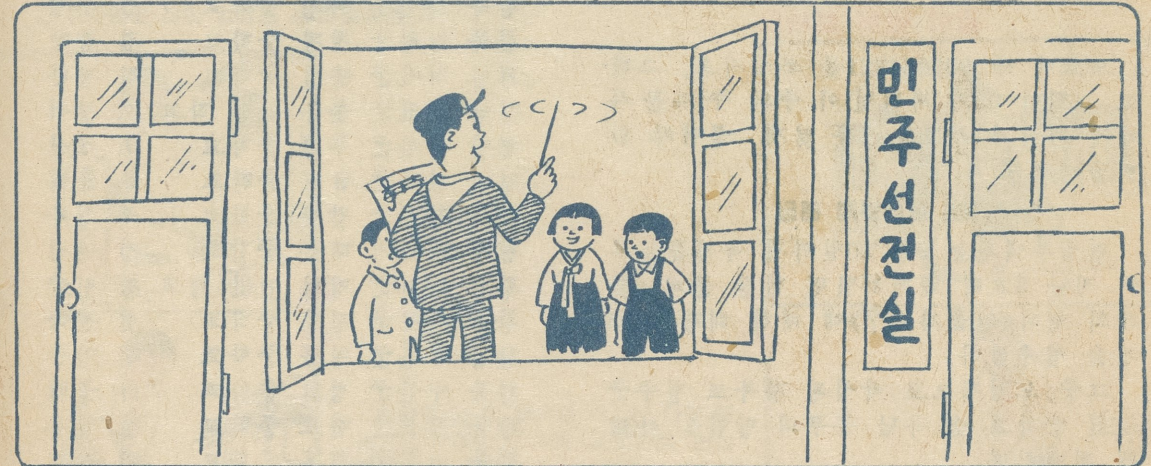
거울 속에 질통을 지고 나타난 동무는 바로 사리원 북리 중학교 구 중남 동무입니다. 다 같이 일 할 때는 이럭 저럭 시간이나 보내며 하면서 반도 차지 못한 질통을 지고 다니며 건달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분단 위원장이 개별적으로 일할 몫을 정해 주었을 때는 질통이 넘도록 지고 달리는 것이였습니다.

이 동무의 로동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의 꼬마 선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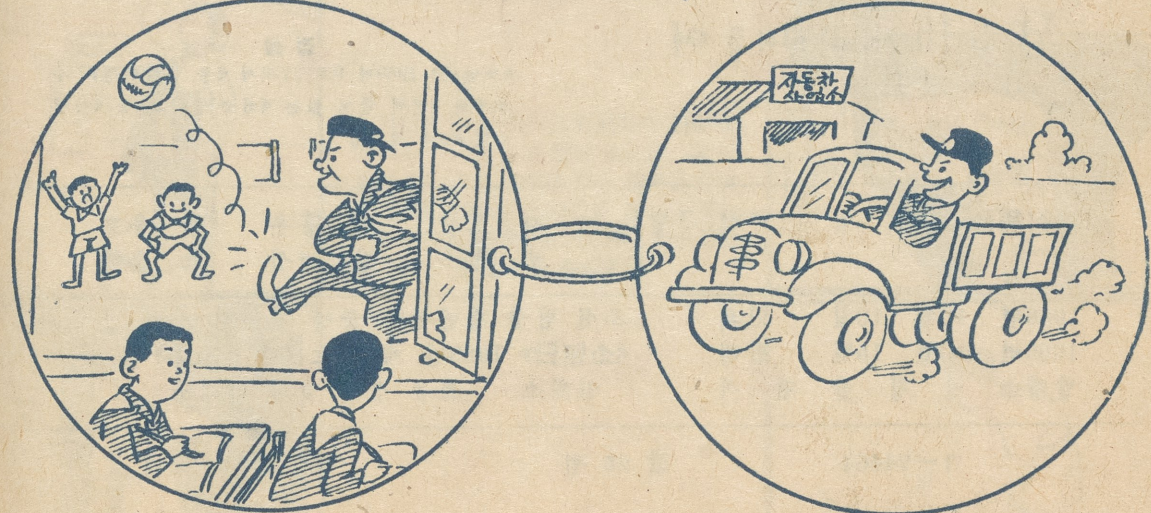
거울 속에 나타난 동무는 황해남도 신천군 룡당 중학교 대 열성자 신 덕원 동무랍니다.

덕원이는 학교에서 마을에 돌아오면 부락 민주 선전실 옆방에 어린 동생들을 모아 놓고 이야기도 해주고 노래도 가르치고 오락도 하며 공부도 하도록 지도 해 줍니다. 지금 부락 어린 동무들은 덕원 동무를 따르면서 생활을 아주 모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범을 전체 학교 동무들이 본받고 있습니다.

두 학습 태만자

거울 속에 나타난 사리원 북리 중학교 최 웅선, 김 선희 동무를 보십시요.

선희 동무는 지금 다른 동무들은 모두 교실에 들어가 산수 학습을 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운동장에 몰래 남아서 어린 하급생들과 같이 뽈을 차고 있습니다.

또한 웅선 동무를 보십시요. 그는 기술 크루쇼크에서 자동차 운전법을 배운 이후부터는 늘 자동차 사업소에 가서 자동차를 몰래 몰고 다니면서 학교를 결석하군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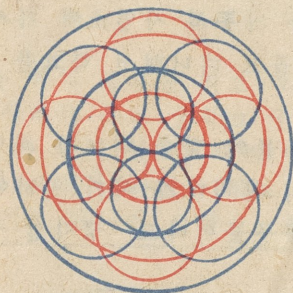
이 동무들의 학습 태도가 과연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는 동무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지요?

알아 맞쳐 보세요

노트에 수 987654321을 쓰십시오. 그리고 그합이 99가 되려면 이 수의 수'자들 사이에 가하기 부호(+)를 몇개 붙여야 하겠습니까?

8호 현상문제 해답

편집부에서는 9월 30일까지 독자들로부터 지난 8호에 제기하였던 현상 문제 《몇개의 원이 있을가요?》에 대한 해답 425건을 접수했다.

그중 모범적으로 작성된 평북도 정주군 일신 중학교 송 옥남 동무의 답안을 아래에 게재한다.

송 옥남 동무의 답안

답: 16개의 원이 들어 있습니다.

현상 문제 당선자

평북 정주군 일신 중학교 송 옥남
평북 곽산 유자녀 학원 김 광현
평북 운산군 제인 인민 학교 리 재힘
평북 박천군 고급 중학교 리 춘해
평북 의주군 대산 중학교 한 승군
함북 김책시 쌍포 중학교 최 일광
함북 라진군 라진 중학교 김 부길
함북 경원군 청계 중학교 김 종철
평남 덕천군 송정 중학교 김 정란
평남 성천군 문옥 인민 학교 오 창귀
평남 순천군 후탄 중학교 조 경신
평남 강남군 금대 중학교 류 윤애
량강 갑산군 갑산 중학교 조 성옥
량강 혜산시 혜산 중학교 정 영진
황남 장연군 명천 인민 학교 김 진숙
황남 은천군 정동 중학교 변 정숙
황남 청단군 영산 중학교 전 만수
황북 수안군 성교 중학교 리 문행
황북 평산군 한포 중학교 장 일용
황북 서흥군 서흥 중학교 림 성호
자강 전천군 중암 중학교 김 해용
강원 안변군 풍화 중학교 한 광덕
강원 회양군 회양 중학교 장 동문
강원 고성군 고성 중학교 권 종힘
함남 수동군 장동 중학교 조 용
함남 덕성군 인동 중학교 김 용국

정정

《소년단》 1959년 9호 37페지 《두 일학년생》 우로부터 3번째 줄에 있는 《전승 중학교》를 《창전 중학교》로 정정함

편집위원 김 주현(주필) 강 효순 림 홍은 박 웅호 송 정우 정 택선 조 순형

1959년 10월 10일 인쇄
1959년 10월 15일 발행
발행소 민 청 출 판 사
조선 민주 청년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소년단》 1959년 제 10호 (총 120호)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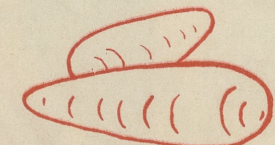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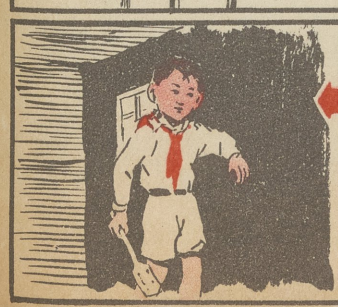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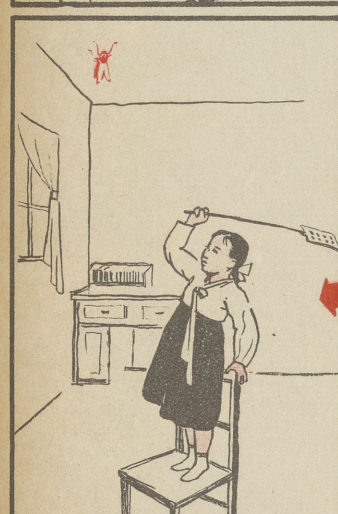
ㄱ—24464 값 25 전 150,000부 발행

소년《위생군위대》원들이 할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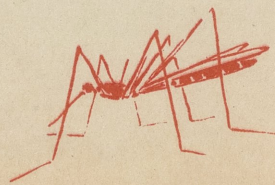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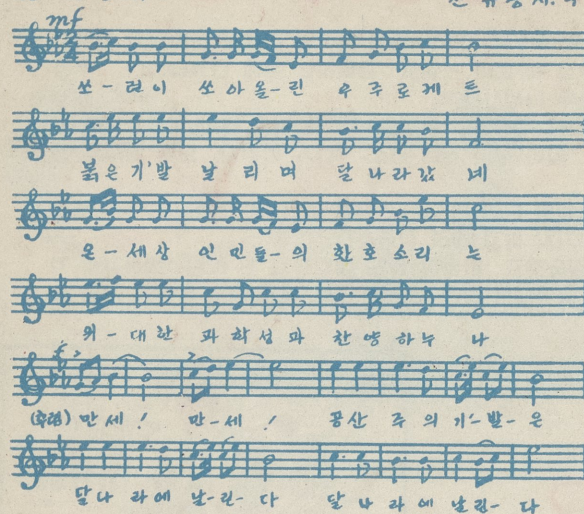
소년단원 동무들! 10월은 도시 위생 월간입니다. 지금 아버지, 어머니들은 거리와 마을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꾸리며 위생 시설들을 개조하며 탁아소, 유치원, 세탁소 등 문화 시설을 건설하는 일에 나섰습니다. 우리들도 부모들을 도와 우리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모두 나섭시다.

그럼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떤 것일가요? 그것은 우리들의 학교와 집 안 팎을 문화 위생적으로 꾸리며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곤충을 박멸하는 것입니다. 땅이 얼기 전에 변소, 축사, 퇴비사, 오물 적치장 등의 주위 땅 속에 숨어 있는 번데기들을 잡아 냅시다.

그리고 날씨가 선선해 짐에 따라 밖에서 활동하던 파리들이 방안 천장이나 창고 안의 해'빛 쬐이는 곳, 또는 부엌의 부뚜막으로 모여 듭니다. 이놈들을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때려 잡읍시다.

지금 많은 암모기들이 지하실, 창고, 지붕밑 등 기타 깊숙하고 바람이 없는 컴컴하고 찬 곳에 들어가서 겨울 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놈들은 봄이 오면 다시 살아나서 많은 새끼를 번식시킵니다. 때문에 지금 당장 이놈들을 잡아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울을 난 한 마리의 파리는 다음 해에 2,000,000,000,000,000마리로 번식될 수 있다. 그러니 겨울을 나는 한 마리의 파리나 번데기를 잡아 없애는 것은 얼마나 많은 파리를 잡는 셈인가!

겨울을 난 한 마리의 암모기는 다음 해에 800~1,000 개의 알을 놓는다. 이 알들은 20~30일 후이면 다시 모기로 되여 또 많은 알을 놓아 새끼를 번식시킨다.

이리하여 마라리아 모기는 1년 동안에 약 10 대 정도로 번식한다.

공산주의 기'발은 달나라에 날린다
약간 빠르고 경쾌하게
신 유경 시. 곡
mf
쏘-련이 쏘아올-린 우주로케트
붉은 기'발 날리며 달나라갔 네
온-세상 인민들-의 환호소리 는
위-대한 과학성과 찬양하누 나
(후렴) 만세! 만-세! 공산 주의 기'-발-은
달나 라에 날-린- 다 달나 라에 날-린- 다
2. 옛날부터 사람들의 공상이였던
달나라 려행의 길은열렸다
허풍치며 뽐내던 미제놈들은
땅우에 떨어진 빵가도울명
-후 렴-
3. 우리는 달나라의 기'발을 보며
위대한 쏘련에 영광 드린다
전쟁을 일삼는자 그 누구냐
평화는 지구에서 달나라까지
-후 렴-
CCCP
1959.9